韓國心理學會誌 : 社會 및 性格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019, Vol. 33, No. 1, 19-52
https://doi.org/10.21193/kjspp.2019.33.1.002

도덕 판단에서 나타나는 내-외집단 차이: 위반 주체 소속집단과 위반 장소의 효과*

이 승 민 설 선 혜†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사회 규범은 집단을 유지하고 집단 구성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규범의 준수와 위반에 대한 판단은 집단 정보와 맥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경쟁 맥락(연구 1)과 경쟁 맥락(연구 2)에서 집단 정보가 도덕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위반 주체의 소속집단(내집단 vs. 외집단)과 위반 장소(내집단 vs. 외집단)에 따라서 도덕 판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았다. 도덕 판단은 위반 규범의 분류와 위반 행위에 대한 평가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연구 1에서는 참가자의 소속 대학교와 타 대학교를 사용하여 집단 정보를 제시하고 대학 생활에서 일어날 법한 규범 위반 사례들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외집단원이 내집단 장소에서 위반한 규범을 외집단 장소에서 위반한 규범에 비해서 도덕보다는 사회 인습으로 분류하는 반면, 내집단원이 위반한 규범에 대해서는 위반 장소와 무관하게 판단하였다. 위반 행위의 평가에서는 내집단원이 내집단 장소보다는 외집단 장소에서 규범을 위반할 때, 사회 인습보다 도덕 원칙 위반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2에서는 경쟁 관계에 있는 야구팀을 사용하여 집단 정보를 제시하고 야구 경기 관람 중 일어날 법한 규범 위반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연구 1과는 반대로 연구 2에서는 내집단 장소에서 외집단원이 위반한 규범을 내집단원이 위반한 규범에 비해 도덕 원칙으로 판단하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위반 주체의 소속집단과 위반 장소가 도덕 판단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양상이 집단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도덕 판단, 내집단-외집단 차이, 검은 양 효과, 도덕적 지역주의, 도덕-인습 구분

* 본 연구는 한국 연구재단 신진연구 지원사업(과제번호: NRF-2018R1C1B6007059)과 BK21 플러스사업(21B20151813119)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논문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교신저자: 설선혜,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E-mail: ssul@pusan.ac.kr

www.kci.go.kr

규범은 집단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고 집단 구성원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사람들은 규범과 관련된 행동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즉 도덕 판단을 통해 집단의 존속과 집단 구성원의 안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동에 적절한 제재를 가하고 집단 내 질서를 유지한다(Haidt, 2001). 따라서 도덕 판단에서는 행위 자체의 옳고 그름뿐만 아니라, 위반 행위가 발생한 장소, 가해자 및 피해자의 소속집단과 같이 집단과 관련된 정보도 중요하게 고려된다(Fessler 등, 2015; Kelly, Stich, Haley, Eng, & Fessler, 2007; Mulvey, Hitti, Rutland, Abrams, & Killen, 2014; Rutland, Killen, & Abrams, 2010; Schmidt, Rakoczy, & Tomasello, 2012b). 한편, 집단 간 관계에 따라서 집단 관련 정보가 영향을 미치는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Brewer, 1999; Duckitt & Mphuthing, 1998; Parker & Janoff-Bulman, 2013).

지금까지 집단 정보와 집단 간 관계가 도덕 판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들은 많았지만(Brewer, 1999; Fessler 등, 2015; Kelly 등, 2007; Marques, Yzerbyt, & Leyens, 1988), 집단 정보의 유형과 집단 맥락에 따라 도덕 판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체계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에서는 비경쟁적 집단 맥락과 경쟁적 집단 맥락에서 위반 주체 소속집단과 위반 장소 정보가 도덕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도덕 판단에서 집단 정보의 중요성

집단 정보가 도덕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질서 유지(Schmidt & Tomasello, 2012a), 긍정적 집단 정체성 유지(Marques 등, 1988), 외집단 위협으로부터의 내집단 보호(Choi & Bowles, 2007; Riek, Mania, & Gaertner, 2006)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내집단 장소에서 발생한 규범 위반 사건은 내집단의 질서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내집단 장소에서의 위반이 외집단 장소에서의 위반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Fessler 등(2015)은 사람들이 시공간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발생한 규범 위반 사건을 더 심각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현상을 보고하면서 '도덕 지역주의(moral parochialism)'라는 개념을 제안하였다. Fessler 등(2015)은 규범 위반 행위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그 자체로 해당 행동에 대한 사회적 제재로 작용하거나 제도적 제재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엄격한 도덕 판단에는 상당한 심리적 자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규범 위반 사건이 도덕 판단을 하는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예상하였다. 가까운 시점과 가까운 거리에서 발생한 규범 위반 사건은 사건을 판단하는 당사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한다는 것이다(Fessler 등, 2015; Kelly 등, 2007).

둘째, 내집단원이 외집단 장소에서 도덕 원칙과 같은 보편적 규범을 위반하는 것은 집단 정체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은 개인이나 집단에 긍정적 평판을 부여하며 사회적 자원을 획득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다(Leach, Bilali, & Pagliaro, 2015; Wojciszke, Bazinska, & Jaworski, 1998). 예를 들어, Leach, Ellemers & Barreto(2007)의 연구에서는 도덕성, 유능함, 사회성 요인이 내집단과 외집단의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외집단보다 내집단에서 도덕성이 유능함과 사회성보다 중요하게 고려됨을 보였으며, 내집단이 도덕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때, 내집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발견은 도덕 판단에서 집단 정보가 내집단의 긍정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검은 양 효과(black sheep effect; Marques 등, 1988)' 연구들은 이러한 가능성과 관련된 경험적 증거를 제시한다. 검은 양 효과란 규범을 준수하는 내집단원과 규범을 위반한 내집단원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규범을

www.kci.go.kr

준수하는 외집단원과 규범을 위반한 외집단원에 대한 태도의 차이보다 크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긍정적 집단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동기가 주요 기전으로 알려져 있다(Marques, Paez, & Abrams, 1998a). 부정적 행동을 하거나 부정적 자질을 지니는 내집단원은 집단 정체성에 위협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외집단원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된다는 것이다(Marques 등, 1998a). 동일한 부정적 행위에 대하여 행위자가 내집단원인 경우 외집단원보다 더욱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결과들이 일관되게 보고되어 왔다(Abrams, Rutland, & Cameron, 2003; Marques 등, 1988).

셋째, 경쟁적 관계에 있는 외집단원이 내집단 장소에서 위반하는 것은 내집단원의 안전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다. 집단 맥락에서 나타나는 내집단-외집단 차이는 내집단 선호(ingroup favoritism 또는 ingroup love)와 외집단 폄하 또는 혐오(outgroup derogation 또는 outgroup hate)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많은 선행 연구들은 내집단 선호와 외집단 폄하가 독립적 차원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참조: Brewer, 1999; De Dreu 등, 2010; Lewis, Kandler, & Riemann, 2014). 비경쟁 상황에서는 외집단 관련 정보보다 내집단 관련 정보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만, 경쟁적 상황에서는 외집단 위협으로부터 내집단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집단원에 대한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외집단에 대한 대응을 하게 된다(Choi & Bowles, 2007; Riek 등, 2006). 즉, 집단 맥락에 따라서 도덕 판단에 개입하는 동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집단 정보가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들은 도덕 판단에서 집단 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 주지만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먼저, 집단 정보의 유형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도덕 판단을 직접적으로 측정한 연구가 드물다. 도덕 판단에서 집단 정보의 효과를 검증한 대부분의 연구들(Marques 등, 1988; Marques, Abrams, Paez, & Martinez-Taboada, 1998b)은 규범을 준수하는 집단 구성원과 위반하는 집단 구성원에 대한 인상 형성을 비교하는 것과 같이 집단 정보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위반 행위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직접 알아본 연구(Fessler 등, 2015)에서도 위반 규범의 분류와 행위에 대한 평가를 종합적으로 측정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집단 간 관계에 따른 집단 맥락을 다양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았던 집단 정보의 유형을 위반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위반 주체의 소속집단으로 구분하여 도덕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도덕 판단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위반 규범의 분류 과제(moral-conventional task; Kohlberg, 1969; Turiel, 1983)와 위반 행위에 대한 평가 과제(Haidt, 2001)를 함께 사용하였다. 또한, 위반 행위에 대한 평가에서는 규범의 유형에 따라서 도덕 판단에 미치는 집단 정보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선행 연구(Liberman, Howard, Vasquez, & Woodward, 2018; Schmidt 등, 2012b)를 바탕으로 규범의 분류에 따라서 위반 행위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함께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집단 맥락에 따라서 내집단과 외집단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Brewer, 1999; Duckitt & Mphuthing, 1998; Parker & Janoff-Bulman, 2013), 비경쟁적 맥락과 경쟁적 맥락을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집단 정보의 구분: 위반 주체의 소속집단과 위반 장소

집단 정보가 도덕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선행 연구(Abrams 등, 2003; Fessler 등, 2015; Marques 등, 1988)들은 위반 주체의 소속집단과 위반 장소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다. 대표적 사례로 '검은 양 효과' 연구들(Abrams 등, 2003; Marques 등, 1988)은 위반 주체의 소속집단에 대한 정보만을

www.kci.go.kr

제공한다. 이 경우 연구 참가자들은 위반 주체의 소속집단과 동일한 장소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가정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장소에 대한 특별한 언급 없이 미국인이 살인 사건을 저질렀다는 시나리오를 읽게 된다면 한국에서 그 사건이 발생했다고 가정하기보다는 미국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내집단원의 위반을 외집단원의 위반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들이 내집단의 긍정적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가까운 거리에서 발생하여 자신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지 알 수 없다.

이러한 한계점은 위반 장소에 대한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Fessler 등(2015)의 연구를 보면, 위반 장소와 위반 주체의 소속집단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위반 장소와 위반 주체 소속집단이 불일치하는 경우에 대한 예측을 제공하지 않는다. 검은 양 효과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위반 장소와 위반 주체의 소속집단 정보가 일치할 것으로 가정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내집단 장소에서 발생한 위반을 외집단 장소에서 발생한 위반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물리적 거리의 효과인지 검은 양 효과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실제 도덕 판단 상황에서 위반 주체의 소속집단과 위반 장소에 대한 정보는 불일치할 수 있다. 그리고 내집단원 또는 외집단원이 내집단 장소에서 규범을 위반했는지, 외집단 장소에서 규범을 위반했는지에 따라서 도덕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인이 미국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와 한국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또는 미국인이 한국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와 미국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따라 판단의 동기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집단 정보가 도덕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규범 위반 사건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 정보를 위반 주체의 소속집단과 위반 장소 정보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덕 판단의 측정: 위반 행위의 평가와 위반 규범의 분류

도덕 판단은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되어왔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은 행위에 대한 평가로, 규범 위반 사례를 제시하고 위반 행위가 얼마나 나쁜지(good or bad), 옳은지 그른지(right or wrong), 허용 가능한지(permissibility), 처벌 가능한지(punishability) 등을 척도상에서 응답하도록 하는 것이다. 도덕 판단을 연구하는 또 다른 방법은 도덕-인습 구분 과제(moral-conventional task)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 과제는 사람들이 주어진 사례에서 위반된 규범을 도덕 원칙이라고 생각하는지 사회 인습이라고 생각하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반 행위에 대한 평가와 위반 규범의 분류라는 두 측면에서 도덕 판단을 종합적으로 측정하였다.

위반 행위의 평가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나 허용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행위자가 위반한 규범이 도덕 원칙에 가까운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처벌 가능성은 도덕적 귀인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질문으로(참조: Cushman, Sheketoff, Wharton, & Carey, 2013; Shultz, Wright, & Schleifer, 1986), 본 연구의 목적과 무관하다. 본 연구에서는 위반 행위에 대한 일반적 판단을 측정하기 위하여 부정적 평가(얼마나 나쁜지에 대한 판단)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도덕-인습 분류 과제는 도덕 원칙을 정의하는 보편적 기준이 존재하고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도덕 발달 단계를 알 수 있는 기준이라는 Kohlberg(1969)의 고전적 모형에 근거하고 있다. 이 모형을 계승한 Turiel(1983)은 '사회 영역 이론(social domain theory)'을 통해 사회 규범을 사회의 조화로운 상호작용과 관련되어있는 사회 인습 영역(social-conventional domain), 정의, 권리, 복지와 관련되어있는 도덕 영역(moral domain), 개인의 주관적 가치를 반영하는 개인적 가치 영역(personal value domain)으로 구분하였다. 예를 들

www.kci.go.kr

어, 타인을 폭행하는 것은 타인에게 신체적으로 해를 가하므로 도덕 원칙에 해당하지만, 존댓말이 있는 문화권에서 나이가 많은 상대방에게 존댓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조화로운 관계를 해치므로 사회 인습에 해당한다. 개인적 가치는 본 연구의 주제와는 무관하며, 도덕 판단 연구들에서도 도덕-인습의 구분과는 독립적인 개념으로 여겨지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자 한다.

도덕-인습의 구분은 주로 위반 규범의 보편성과 행위의 정당화 근거, 두 측면에서 측정된다(박영신, 2001; 설선혜, 이승민, 2018; Turiel, 2008). 첫째, 도덕 원칙은 사회 인습보다 더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이다. 도덕 원칙을 위반한 사건은 사회 인습을 위반한 사건에 비해서 보편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도 그 판단이 달라지지 않으며, 규칙이나 권위에 따른 지시 여부와 무관하게 허용되지 않는다. 둘째, 도덕 원칙은 타인의 복지, 권리, 정의의 침범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되지만, 사회 인습은 사회적 역할이나 조화로운 관계 유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보편성을 기준으로 도덕-인습의 분류를 측정하였다.

사회 영역 이론에서는 규범의 분류가 개인 내적으로나 개인 간에 안정적이고 일관된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도덕 원칙과 사회 인습이 이분법적으로 구분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개인 간 일관성이 높지 않을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개관: 설선혜, 이승민, 2018). 예를 들어, 도덕 원칙과 사회 인습의 경계에 위치하는 규범이 있을 수 있다. 집단의 리더가 싫어하는 구성원을 집단 내에서 배척하는 것은 집단 구성원들이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집단의 조화를 해치기 때문에 도덕 원칙 위반과 사회 인습 위반에 모두 해당한다(Turiel, 2008). 또한, 도덕-인습 구분에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 Wright, Cullum & Schwab(2008)은 40개의 사회적 이슈를 제시하고, 해당 이슈가 '객관적으로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사건(도덕 사건, moral)'과 '사람마다 옳고 그름이 달라질 수 있는 사건(비도덕 사건, non moral)'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한 개의 사건을 제외하면 평정자들의 구분이 일치하지 않아 개인마다 사건을 다르게 분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경험과 같이 위반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요인이 위반한 규범의 분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제안도 있었다(Leenders & Brugman, 2005). 본 연구에서는 규범의 유형을 연구자가 사전에 결정하지 않고 참가자 개개인의 도덕-인습 분류 결과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사회 영역 이론에서 제안한 규범의 구분 기준(허용성, 규칙 독립성, 일반성)을 이용하여 개별 규범 위반 시나리오에 대한 참가자 개개인의 도덕-인습 분류를 연속 점수로 측정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한편, 규범의 유형에 따라 집단 정보가 위반 행위의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Kelly 등, 2007; Liberman 등, 2018; Schmidt 등, 2012b). 예를 들어, Schmidt 등(2012b)은 집단 정보가 도덕 원칙보다 사회 인습 위반 판단에 더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Schmidt 등(2012b)은 3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내집단원과 외집단원의 사회 인습 위반과 도덕 원칙 위반에 대한 반응을 연구하였다. 사회 인습 위반 사례로는 놀이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것 등을, 도덕 원칙 위반 사례로는 만든 작품을 망가뜨리는 것 등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 인습 위반에 대해서는 외집단원보다 내집단원이 위반했을 때 더 비난했지만, 도덕 원칙 위반의 경우 내외집단의 구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규범의 유형에 따른 집단 정보 영향의 차이는 긍정적 도덕 행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Liberman 등(2018)의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에게 긍정적 규범 사건을 제시한 후, 제시된 행동을 내집단원과 외집단원 중 누가 했을지 질문하였다. 사회 인습 준수 사례는 '도서관에서 조용히 하기' 등을, 도덕 원칙 준수 사례는 '친구에게 선물 주기' 등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 인습을 준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외집단원보다는

www.kci.go.kr

내집단원일 것으로 추측하였으나 도덕 원칙을 준수하는 사람의 소속집단 추론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선행 연구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도덕 판단에서 나타나는 내집단-외집단의 차이가 위반 규범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예를 들어, 내집단원이 외집단 장소에서 사회 인습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외집단의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너그럽게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도덕 원칙 위반에 대해서는 내집단 전체의 평판을 해치는 행위로 판단하여 내집단 장소보다 외집단 장소에서 위반하는 것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집단 정보의 영향을 받는 도덕 판단 측정치로 위반 규범의 분류와 위반 행위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종속변수로 사용하는 동시에, 규범의 분류를 위반 행위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 고려하였다.

집단 맥락: 비경쟁 상황과 경쟁 상황의 차이

사람들은 내집단을 외집단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내집단원에게 더 호의적으로 대하는 내집단 편향(ingroup bias)을 보인다(Ratner, Dotsch, Wigboldus, van Knippenberg, & Amodio, 2014). 내집단 편향은 대체로 내집단 선호에 따른 결과이며, 외집단에 대한 적극적 혐오는 쉽게 관찰되지 않는다(Balliet, Wu, & De Dreu, 2014; Brewer, 1999). 그러나 내집단에게 위협이 되는 외집단에 대해서는 외집단 폄하와 내집단 선호가 동시에 나타난다(Brewer, 1999; Duckitt & Mphuthing, 1998; Parker & Janoff-Bulman, 2013). 예를 들어, Parker와 Janoff-Bulman(2013)은 도덕적 이슈에 대한 의견(가치관)으로 집단을 구분한 경우와 도덕과 무관한 이슈(선호)에 대한 의견으로 집단을 구분한 경우를 비교하였다. 도덕적 이슈에 대한 의견으로 집단을 구분한 경우 참가자들은 자신과 의견이 다른 외집단에 위협을 느낀다고 보고하였으며, 내집단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모두 나타냈다. 그러나 도덕과 무관한 이슈로 집단을 구분한 경우, 참가자들은 외집단 위협을 느끼지 않았고 내집단에 대한 긍정적 태도만을 보였으며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관찰되지 않았다. 즉, 외집단이 내집단에게 위협이 되는 경우에만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내집단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모두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외집단이 내집단에 위협으로 작용할 때 외집단에 대한 적대감이 표출되며(Brewer, 1999), 외집단원과 협력하지 않으려고 하는 등(Brambilla, Sacchi, Pagliaro, & Ellemers, 2013) 외집단원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적극적 대응 행동이 나타난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내집단과 외집단의 관계, 즉, 집단 맥락에 따라서 집단 정보가 도덕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쟁 상황이 외집단 위협과 집단 간 적대적 관계를 형성한다는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비경쟁적 상황과 경쟁적 상황으로 집단 맥락을 달리하였다. 연구 1에서는 비경쟁적 상황에서, 연구 2에서는 경쟁적 상황에서 집단 정보가 도덕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집단 정보가 도덕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행위자의 소속집단(위반 주체의 소속집단)과 위반 사건이 발생한 장소(위반 장소)의 효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도덕 판단은 위반 규범의 분류(도덕-인습 분류)와 위반 행위에 대한 평가(부정적 평가)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측정하였다. 연구 1에서는 비경쟁적 집단 맥락, 연구 2에서는 경쟁적 집단 맥락에서 집단 정보가 도덕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 정보를 위반 주체의 소속집단과 위반 장소 정보로 구분하여 각 정보가 위반 규범의 분류와

www.kci.go.kr

위반 행위의 평가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둘째, 집단 정보가 위반 행위의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위반 규범의 분류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셋째, 내집단과 외집단의 관계가 비경쟁적인 경우(연구 1)와 경쟁적인 경우(연구 2)를 구분하여 집단 정보가 도덕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서로 다른 집단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1의 비경쟁적 집단 맥락에서는 내집단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집단 정보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따라서 '내집단원의 위반'에 주의를 기울이고, 외집단 장소에서 발생한 내집단원의 위반을 내집단 장소에서 발생한 위반보다 더 엄격하게 판단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반면, 연구 2의 경쟁적 집단 맥락에서는 외집단 위협으로부터 내집단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동기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따라서 '내집단 장소에서 발생한 위반'에 초점을 두고, 내집단원에 비하여 외집단원의 위반을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방향으로 집단 정보를 고려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연구 1과 2의 구체적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위반 주체 소속집단과 위반 장소 정보가 위반 규범의 분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비경쟁적 집단 맥락에서는 내집단원이 내집단 장소에서 위반한 규범보다 외집단 장소에서 위반한 규범을 도덕 원칙에 가깝게 분류할 것이다.

가설 1-2. 경쟁적 집단 맥락에서는 내집단 장소에서 외집단원이 위반한 규범을 내집단원이 위반한 규범에 비해 도덕 원칙에 가깝게 분류할 것이다.

가설 2. 위반 주체 소속집단과 위반 장소 정보가 위반 행위의 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위반 규범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가설 2-1. 비경쟁적 집단 맥락에서는 내집단원이 내집단 장소보다 외집단 장소에서 규범을 위반할 때, 사회 인습 위반보다 도덕 원칙 위반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가설 2-2. 경쟁적 집단 맥락에서는 내집단 장소에서 내집단원보다 외집단원이 규범을 위반할 때, 사회 인습 위반보다 도덕 원칙 위반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연구 1
비경쟁 상황에서 집단 정보가 도덕 판단에 미치는 영향

연구 1은 비경쟁적 상황에 있는 내・외집단의 정보를 위반 주체의 소속집단과 위반 장소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을 때, 각 집단 정보가 도덕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참가자들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법한 규범 위반 사건에 대한 여러 개의 시나리오를 한 번에 하나씩 읽고 도덕 판단을 하였다. 이때 규범 위반 사건 시나리오에 위반 주체의 소속집단과 위반 장소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시하였다. 비경쟁적 집단 맥락을 제시하기 위해서 참가자의 소속 대학교를 이용하여 위반 장소와 위반 주체 소속집단 정보를 제공하였다. 참가자가 소속된 P대학교를 내집단으로, 참가자의 소속 대학교와 가까운 지역에 있으면서 인지도와 입학 성적이 유사하고 교류가 빈번하지만 경쟁 관계에 있지 않은 타 대학인 K대학교를 외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위반 주체의 소속집단 정보는 P대학교 학생(내집단) 또는 K대학교 학생(외집단)이 저지른 위반 사건을 판단하는 상황으로 제시하였으며, 위반 장소 정보는 P대학교(내집단) 또는 K대학교(외집단)에서 위반이 발생한 상황으로 제시하였다. 도덕 판단은 위반 규범의 분류와 위반 행위에 대한 평가로 측정하였으며, 규범의 분류에 따른 평가의 차이도 함께 살펴보았다. 연구 1의 모든 절차는 부산대학교의 생명윤리심의 위원회의 승인(PNU IRB/2016_120_HR)을 받은 후에 진행되었다.

www.kci.go.kr

방 법

연구 참가자

P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156명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보상으로 심리학과 수업의 크레딧을 부여받았다. 모든 질문에 동일한 응답을 하거나 집단 정체성 점화 과제에서 정답률이 80% 이하로 나타나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네 명의 참가자와 연구 절차 이해에 어려움을 겪었던 외국인 학생 한 명을 제외한 151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최종 분석에 포함된 실험 참가자는 남성 47명, 여성 104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0.4(SD = 1.78)세였다. 인구학적 특성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성별과 연령을 통제한 분석 결과도 포함하였다. 집단 정보의 종류를 주요 독립변인으로 하여 2(위반 주체의 소속집단: 외집단-K대학교, 내집단-P대학교)×2(위반 장소: 외집단-K대학교, 내집단-P대학교) 참가자 간 설계를 사용하였으며, 외집단원-외집단 장소 조건에 37명, 외집단원-내집단 장소 조건, 내집단원-외집단 장소 조건, 내집단원-내집단 장소 조건에는 각각 38명이 무선할당 되었다.

연구 절차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규칙 위반 사건에 대한 판단을 알아보는 것으로 연구 목적을 소개하였다. 참가자들은 실험실에 도착한 뒤 먼저 실험의 전반적 절차가 안내되어있는 설명문을 읽고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그 뒤 개별 실험 진행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받았다. 실험은 집단 정체성 점화 과제, 도덕 판단 과제, 외집단에 대한 태도를 묻는 설문지 작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집단 정체성 점화 과제는 참가자들이 지닌 집단 정체성 중에서 소속 대학교와 관련된 정체성을 일시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속 대학교와 관련된 자극과 자신을 연관 짓는 과정을 포함시켰다. 도덕 판단 과제는 대학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규범 위반 사건들이 담긴 시나리오를 보고 위반 규범의 분류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과 위반 행위에 대한 평가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에 응답하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K대학교를 비경쟁적 관계에 있는 외집단으로 인식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을 포함한 모든 과제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실시되었다.

집단 정체성 점화

참가자들은 P대학교 또는 K대학교의 상징, 대학교의 이름, 또는 자신의 이름이 화면에 제시되면 해당 상징과 이름이 어느 대학교와 관련되어있는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하도록 지시받았다. 집단 정체성 점화과제는 설선혜, 이민우, 김학진(2014)의 절차를 차용한 것으로, 참가자들을 내집단의 상징에 노출시키고, 참가자가 소속된 대학교의 상징과 참가자 자신의 이름을 동일하게 분류하는 과정을 통하여 참가자들이 소속된 여러 사회 집단 중에서 특히 소속 대학교와 관련된 집단 정체성을 일시적으로 점화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P대학교와 K대학교의 상징을 각 세 개씩 선별하여 모두 여섯 개의 상징을 사용하였으며, 대학교 이름 두 개(P대학교, K대학교)와 참가자의 이름을 포함한 아홉 개의 자극이 무선적으로 두 번씩 화면에 제시되었다. 참가자들은 키보드의 F(왼쪽)와 J(오른쪽) 키를 눌러서 화면 중앙에 제시되는 자극을 소속 대학교(P대학교) 또는 K대학교로 분류하였다.

도덕 판단 과제

도덕 판단 과제에서는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경험할 수 있는 28가지의 위반 사건을 제시하였다(부록 Ⅰ). 연구에서 사용된 위반 사건은 Turiel (1983)이 사회 영역 이론에서 제시한 규범 위반의 정의를 반영하여 대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

www.kci.go.kr

할 수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제작하였다. 도덕 원칙 위반에 해당하는 사례는 타인에게 해를 가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등으로 구성하였다. 사회 인습 위반에 해당하는 사례는 교내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행위 등을 위반 사건으로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도덕 원칙 위반 사례로는 타인에게 폭행을 가하는 행위 등을, 사회 인습 위반 사례로는 단체복을 입지 않는 사례 등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시나리오에 다양한 규범을 포함하기 위함이었으며, 연구자가 사전에 규범의 유형을 정의하고자 하는 목적은 아니었다.

각 위반 사건에 대하여 실험 조건에 따라 위반 주체의 소속집단과 위반 장소 정보를 달리하여 제시하였다. 위반 주체의 소속집단이 내집단인 경우 P대학생으로, 외집단인 경우 K대학생으로 제시하였다. 위반 장소 또한 참가자들의 소속집단을 이용하여 제시하였는데, 위반 행위가 내집단에서 발생한 경우 P대학교로, 외집단에서 발생한 경우 K대학교로 제시하였다. 위반 사건을 자연스러운 맥락에서 제시하기 위하여 P대학교 학생이 K대학교에서 위반 행위를 저지르는 것과 같이 위반 주체의 소속집단과 위반 장소가 불일치하는 경우 위반 주체가 교환학생임을 명시하여 시나리오의 사실성을 높였다.

참가자들은 위반 사건에 대한 글을 읽고, 위반 행위에 대한 평가와 위반 규범의 분류를 측정하는 질문에 응답하였다. 첫째, 위반 행위에 대한 평가를 알아보기 위해 참가자들에게 제시된 사건에 나타난 행동이 얼마나 나쁜지(이야기에 제시된 주인공의 행동은 얼마나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하여 7점 척도(1-전혀 나쁘지 않다/7-매우 나쁘다)로 질문하였다. 둘째, 위반 규범의 분류는 Turiel(1983)이 제안한 세 가지 준거 기준인 허용성, 규칙 독립성, 일반성 기준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반 사건의 분류에 개인차를 반영하고자 위반 사건에 나타난 규범이 도덕 원칙 또는 사회 인습에 해당하는 정도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첫째, 허용성은 제시된 위반 행위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정도로, 행위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반영한다. 사회 인습보다는 도덕 원칙을 위반하였을 때 허용성이 더 낮게 평가된다. 허용성은 '이야기에 등장한 주인공의 행동은 허용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1~7(1-매우 허용되지 않는다/7-매우 허용된다) 사이의 점수로 응답하는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둘째, 규칙 독립성은 위반 사건에 대한 판단이 규칙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정도이다. 사회 인습보다 도덕 원칙 위반에 대한 판단이 더 규칙 독립적이다. 규칙 독립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참가자들에게 '만약 이야기에 제시된 행동을 규제하는 규칙이 없다면, 이러한 행동은 얼마나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1~7점(1-전혀 나쁘지 않다/7-매우 나쁘다) 사이의 점수로 응답하도록 한 뒤, 부정적 평가 문항에 대한 응답과의 차이를 구하였다.

수식 1. 규칙 독립성 점수 = 부정적 평가 점수 -규칙이 없을 때의 부정적 평가 점수

셋째, 일반성은 위반 사건에 대한 판단이 다른 사회적 맥락에서도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는 정도이다. 도덕 원칙 위반에 대한 판단은 사회적 맥락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회 인습보다 높은 일반성을 지닌다. '다른 대학교에서도 이야기에 제시된 행동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1~7점(1-매우 허용되지 않는다/7-매우 허용된다) 사이의 점수로 응답하도록 한 뒤, 허용성 점수와의 차이를 구하는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수식 2. 일반성 점수 = |다른 대학교에서의 허용성 점수 - 허용성 점수|

위반 행위에 대한 평가는 참가자들의 응답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위반 규범의 분류는 세

www.kci.go.kr

기준(허용성, 규칙 독립성, 일반성)을 모두 반영하는 종합 점수(도덕-인습 분류 점수)를 구하였다. 구체적인 공식은 다음과 같다.

수식 3. 도덕-인습 분류 점수 = -[Z(허용성 점수) + Z(규칙 독립성 점수) + Z(일반성 점수)]

수식 3에서 허용성 점수의 경우 값이 클수록 제시된 사건의 허용 가능성을 높게 판단한 것이므로, 사회 인습에 가깝게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규칙 독립성 점수는 일반적 부정적 평가 점수에서 규칙 독립성 점수를 뺀 차이 값으로, 차이점수가 정적으로 클수록 규칙이 없을 때 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사회 인습으로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일반성 점수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와 다른 대학교에서 허용되지 않는 정도를 반영하는 점수의 차이이다. 일반성에 대한 차이점수의 경우 방향성과 무관하게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정도가 중요하므로 차이점수의 절댓값을 사용하였다. 일반성 점수의 차이 값이 클수록 위반 사건에 대한 판단이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회 인습으로 판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각 기준 점수가 도덕-인습 분류 점수에 반영되는 정도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허용성, 규칙 독립성, 일반성 점수를 각각 표준 점수로 변환 후 합산하였다. 표준 점수는 분석의 목적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계산되었다. 실험 조건에 따른 규범 분류의 차이를 알아보는 분석에서는 전체 참가자 간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하여 표준화하였다. 참가자 개개인의 규범 분류에 따른 부정적 평가의 차이를 알아보는 분석에서는 각 참가자 내에서 도덕-인습 분류가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참가자 내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하여 표준 점수를 구했다. 결과 해석의 편의를 위하여 점수가 클수록 도덕 원칙에 해당하도록 최종 합산 점수에 -1을 곱하여 부호를 바꾼 점수를 도덕-인습 분류 점수로 사용하였다.

외집단에 대한 태도 측정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도덕 판단 과제에서 제시된 외집단에 대한 태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외집단에 대한 호감도(귀하께서는 K대학교에 얼마나 호감을 느끼십니까?;1:매우 호감을 느끼지 않는다-7:매우 호감을 느낀다), 유사성(귀하께서는 K대학교가 P대학교와 얼마나 유사하다고 생각하십니까?;1:매우 유사하지 않다-7:매우 유사하다), 경쟁의식(귀하께서는 K대학교에 경쟁의식을 얼마나 느끼십니까?;1:매우 느끼지 않는다-7:매우 느낀다)을 질문하였다.

결과 및 논의

외집단에 대한 태도

외집단(K대학교)을 비경쟁적 관계로 인식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외집단에 대해 느끼는 호감도, 유사성, 경쟁의식을 바탕으로 외집단에 대한 태도를 확인하였다. 외집단에 대한 세 가지 태도에 대하여 척도의 중앙값(4)을 기준으로 실시한 일 표본 t 검증 결과, 연구 1의 참가자들은 외집단에 호감을 느끼고[M = 4.563, SD = 1.349, $t(150) = 5.126$, $p < .001$], 유사하게 지각하며[M = 4.444, SD = 1.454, $t(150) = 3.749$, $p < .001$], 경쟁의식을 낮게 지각하였다[M = 2.397, SD = 1.575, $t(150) = -12.503$, $p < .001$]. 예상대로 연구 1의 연구 참가자인 P대학교 학생들은 외집단으로 선택된 K대학교에 대해서 비교적 우호적이며 경쟁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집단에 대한 인식의 개인차가 집단 정보를 고려하는 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위반 행위의 평가에 대한 분석에서 유사성, 호감도, 경쟁의식에 대한 응답을 공변량으로 투입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한편, 집단 정체성 점화 과제의 평균 정답률은 약 99%(평균

www.kci.go.kr

정답 개수 = 17.818, *SD* = 0.501)로, 참가자들이 K대학교와 P대학교의 상징을 정확하게 구분하였으며 과제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위반 주체의 소속집단과 위반 장소에 따른 도덕 판단의 차이

비경쟁적 집단 맥락에서는 외집단 위협이 부각되지 않기 때문에, 내집단의 긍정적 정체성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위반 주체의 소속집단과 위반 장소 정보를 고려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구체적으로, 규범의 분류에서는 내집단원이 외집단 장소에서 위반한 규범을 내집단 장소에서 위반한 규범에 비해 도덕 원칙에 가깝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하였다(가설 1-1). 또한, 내집단원이 내집단 장소보다 외집단 장소에서 위반했을 때, 도덕 원칙 위반을 사회 인습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기대하였다(가설 2-1). 모든 분석에서 3IQR(Inter-Quartile Range)을 넘어선 극단치를 제외하였다. 28개의 시나리오에 대한 준거 기준 점수와 위반 행위 평가의 평균값은 부록 Ⅲ에 제시되었다.

위반 규범의 분류

실험 조건에 따라 위반 규범의 분류가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28개 시나리오 각각에 대하여 도덕-인습 분류 점수의 참가자 간 평균을 종속변수로 하여 2(위반 주체의 소속집단: 내집단/외집단)×2(위반 장소: 내집단/외집단) 이원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28개 시나리오가 분석의 단위가 되었다.

분석 결과, 위반 주체의 소속집단과 위반 장소의 상호작용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F(1,108) = 5.706$, $p = .019$, $\eta^2 = .050$], 위반 주체의 소속집단과 위반 장소에 따라 위반 규범을 다르게 분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1). 내집단원이 외집단 장소에서 위반한 규범을 내집단 장소에서 위반한 규범보다 도덕 원칙에 더 가깝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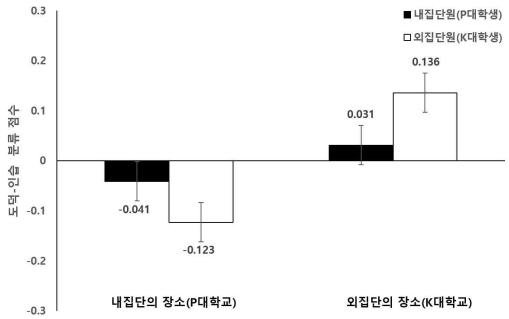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1의 위반 장소와 위반 주체 소속집단에 따른 위반 규범의 분류. 오차막대는 표준오차임.

분류하는지(가설 1-1) 확인하기 위하여, 각 위반 주체의 소속집단에서 위반 장소를 대비한 단순 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내집단원(P대학생)이 위반 주체인 경우 내집단 장소(P대학교; $M = -0.041$, $SD = 0.215$)보다 외집단 장소(K대학교; $M = 0.031$, $SD = 0.202$)에서의 위반을 도덕 원칙에 다소 가깝게 분류하는 경향성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1,108) = 1.738$, $p = .190$, $\eta^2 = .016$]. 반면, 위반 주체가 외집단원(K대학생)인 경우 외집단 장소(K대학교)일 때($M = 0.136$, $SD = 0.202$)보다 내집단 장소(P대학교)($M = -0.123$, $SD = 0.206$)에서 위반한 규범을 사회 인습에 가깝게 판단하였다[$F(1,108) = 22.059$, $p < .001$, $\eta^2 = .170$].

소속집단과 장소의 상호작용 효과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소속집단이 아닌 장소에서 규범을 위반하는 것을 소속집단의 장소에서 규범을 위반하는 것보다 상대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일반적 경향성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내집단원이 위반 주체일 때 장소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내집단원이 외집단 장소에서 저지른 위반에 대한 엄격한 판단으로 인해 이러한 경향성이 상쇄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외집단원이 자신의 소속집단이 아닌 장소에서 규범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규범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나 문화의 차이 때문이라고 이해될 수 있는 사회 인습으로 분류하는 반면, 내집단원의 위반을

www.kci.go.kr

판단할 때는 장소에 따른 분류 차이가 없었다. 외집단원 조건에서 관찰된 위반 장소 효과를 함께 고려하면, 내집단원이 외집단 장소에서 위반한 규범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설 1-1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편, 이원분산분석에서 위반 장소의 주 효과도 유의하였다[F(1,108) = 18.091, p < .001, η^2 = .143]. 참가자들은 내집단 장소(P대학교)에서 위반 사건이 발생한 경우(M = -0.082, SE = 0.028)에 비하여 외집단 장소(K대학교)에서 위반 사건이 발생한 경우(M = 0.084, SE = 0.028)에 위반된 규범을 도덕 원칙에 더 가까운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이것은 위반 주체가 외집단원일 때 나타난 장소 효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반 주체 소속집단의 주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F(1,108) = 0.09, p = .765, η^2 = .001].

위반 행위에 대한 평가

위반 행위에 대한 평가에서 집단 정보의 영향은 규범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구체적으로, 내집단원이 내집단 장소보다는 외집단 장소에서 도덕 원칙을 위반하는 것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가설 2-1).

규범의 종류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전에 위반 주체의 소속집단과 위반 장소가 위반 행위의 전반적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먼저 분석하였다. 참가자마다 28개 위반 사건에 대한 부정적 평가 점수의 평균을 구하여 종속변수로 하고 외집단에 대한 태도(유사성, 호감도, 경쟁의식)를 공변량으로 포함시킨 2(위반 주체의 소속집단: 내집단/외집단)×2(위반 장소: 내집단/외집단)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위반 장소의 주 효과가 유의하였다[F(1,144) = 4.073, p = .045, η^2 = .028]. 위반 사건이 외집단 장소(K대학교)에서 발생한 경우(M = 4.495, SE = 0.062), 내집단 장소(P대학교)에서 발생한 경우(M = 4.317, SE = 0.062)보다 위반 행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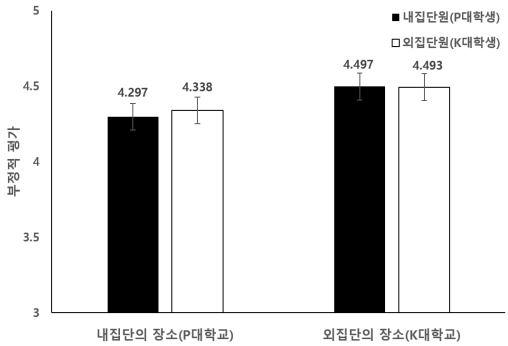

그림 2. 연구 1의 위반 장소와 위반 주체 소속집단에 따른 위반 행위의 평가. 오차막대는 표준오차임.

더욱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그림 2). 위반 주체 소속집단의 주 효과[F(1,144) = 0.043, p = .836, η^2 = .000] 및 위반 주체의 소속집단과 위반 장소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F(1,144) = 0.066, p = .798, η^2 = .000]. 성별과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공변량으로 투입한 호감도[F(1,144) = 1.418, p = .236, η^2 = .010], 유사성[F(1,144) = 0.351, p = .555, η^2 = .002], 경쟁의식[F(1,144) = 0.839, p = .361, η^2 = .006]도 위반 행위에 대한 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위반 행위에 대한 평가는 위반 규범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부정적 평가의 평균 점수만을 살펴보는 것은 집단 정보의 효과를 가릴 수 있다. 그러므로 위반 규범의 분류에 따른 위반 행위의 평가가 집단 정보에 따라서 달라지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내집단원이 위반 주체인 경우, 사회 인습보다 도덕 원칙 위반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성이 내집단 장소보다 외집단 장소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참가자 개개인의 규범에 따른 도덕 판단 모형을 선형함수로 추정하였다. 참가자마다 28개 시나리오에 대한 도덕-인습 분류 점수를 계산한 뒤, 도덕-인습 분류 점수가 위반 행위의 평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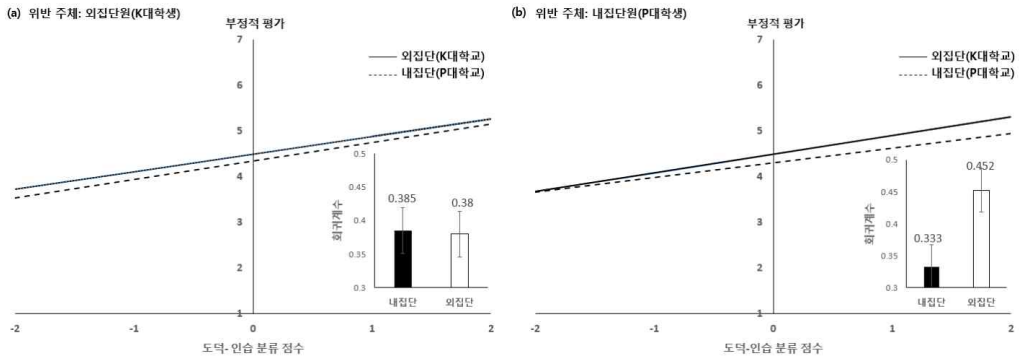

그림 3. 실험 조건 별 위반 규범의 분류에 따른 위반 행위의 평가 패턴. 도덕-인습 분류 점수는 ±2표준편차 범위에서 나타냈으며, 우측 하단의 그래프는 위반 장소를 구분하였을 때 표준화 회귀계수의 평균과 표준오차를 나타냄.

가를 예측하는 선형 모형을 적합(fitting)하여 표준화 회귀계수를 추정한 후 참가자마다 위반 규범의 분류에 따라 위반 행위의 평가가 달라지는 정도를 추정하였다. 다시 말해, 그림 3에 나타난 선형함수의 기울기를 추정한 것이다. 그림 3은 실험 집단별로 도덕-인습 분류 점수가 위반 행위의 평가를 예측하는 추세선을 표시한 것이다. 그림 3a는 외집단원이 위반 주체인 경우 위반 장소에 따라 추세선을 구별하여 그린 것이고, 그림 3b는 내집단원이 위반 주체인 경우 위반 장소에 따라 추세선을 구별하여 그린 것이다. 전반적으로 도덕 원칙에 가까운 규범의 위반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양상이 관찰되었는데, 그 정도는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예를 들어, 외집단원이 위반 주체인 경우는 위반 장소가 달라져도 추세선의 기울기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3a). 그러나 내집단원이 위반 주체인 경우, 내집단 장소에 비해서 외집단 장소에서 도덕 원칙에 가까운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도덕-인습 점수가 높을수록)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경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추정된 선형함수에서 얻어진 표준화 회귀계수를 종속변수로, 외집단에 대한 태도(유사성, 호감도, 경쟁의식)를 공변량으로 투입한 2(위반 주체의 소속집단: 내집단/외집단)×2(위반 장소: 내집단/외집단)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3IQR을 넘어선 극단치 한 개는 제외되었다. 먼저, 위반 주체의 소속집단과 위반 장소의 상호작용 경향성이 나타났다[$F(1,143) = 3.329$, $p = .070$, $\eta^2 = .023$]. 가설 2-1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반 주체가 내집단원(P대학생)인 경우 위반 장소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외집단 장소(K대학교)일 때($M = 0.452$, $SE = 0.034$)와 내집단 장소(P대학교)일 때($M = 0.333$, $SE = 0.034$)의 선형 함수 기울기 차이가 유의하였다[$F(1,143) = 6.192$, $p = .014$, $\eta^2 = .042$](그림 3b). 즉, 내집단원이 내집단 장소보다 외집단 장소에서 규범을 위반할 때, 도덕 원칙 위반을 사회 인습 위반에 비해서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성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위반 주체가 외집단원(K대학생)인 경우 위반 장소가 외집단 장소(K대학교)일 때($M = 0.380$, $SE = 0.034$)와 내집단 장소(P대학교)일 때($M = 0.385$, $SE = 0.034$) 기울기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F(1,143) = 0.012$, $p = .914$, $\eta^2 = .000$](그림 3a).

성별과 연령을 통제하였을 때도 결과는 동일하였다. 공변량으로 투입한 유사성과 경쟁의식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F(1,143) = 1.172$, $p = .281$, $\eta^2 = .008$, $F(1,143) = 0.025$, $p = .874$, $\eta^2 = .000$], 호감도의 효과는 유의하여[$F(1,143) = 4.565$, $p = .034$, $\eta^2 = .031$] 외집단

www.kci.go.kr

에 대한 호감도가 높을수록 전반적으로 사회 인습 위반보다 도덕 원칙 위반을 더욱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분석 결과, 위반 장소×호감도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F(2,73) = 4.846$, $p = .011$, $\eta^2 = .117$]. 내집단 장소 조건에서 기울기에 미치는 호감도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B의 신뢰구간 = [-.001, .076]), 외집단 장소에서 기울기에 미치는 호감도 효과만 유의하였다(B의 신뢰구간 = [.018, .100]). 위반 장소의 효과가 내집단원에서만 유의했던 결과를 고려할 때, 호감도의 효과는 내집단원이 외집단 장소에서 사회 인습보다 도덕 원칙을 위반하는 것을 더욱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성이 외집단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연구 1에서는 비경쟁적 상황에 있는 집단 정보가 위반 규범의 분류와 위반 행위의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비경쟁적 맥락에서는 내집단의 긍정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위반 주체의 소속집단과 위반 장소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위반 규범의 분류와 위반 행위에 대한 평가에서 전반적으로 가설과 일치하는 방향의 결과가 관찰되었다. 외집단원이 내집단 장소에서 위반한 규범을 외집단 장소에서 위반한 규범에 비해 사회 인습에 가까운 것으로 분류하여 상대적 기준을 적용하는 반면, 내집단원이 위반한 규범은 장소와 무관하게 분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위반 주체의 소속집단과 일치하지 않는 장소에서 발생한 위반에 상대적 기준을 적용하는 일반적 경향성이 내집단원에 대해서는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위반 행위의 평가에서는 내집단원이 내집단 장소보다는 외집단 장소에서 위반한 경우, 사회 인습보다 도덕 원칙과 같은 보편적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성이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줄 수 있는 내집단원을 폄하하여 내집단의 긍정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검은 양 효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그밖에도 전반적으로 내집단보다 외집단에서 발생한 위반 행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양상이 관찰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외집단 장소에서 내집단원이 도덕 원칙을 위반한 경우를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인 것으로 추측된다.

연구 2
경쟁 상황에서 집단 정보가 도덕 판단에 미치는 영향

연구 2에서는 경쟁적 상황의 집단 정보가 위반 규범의 분류와 위반 행위의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경쟁 상황에 있는 집단 정보를 제시하기 위하여 프로야구팀의 경쟁 상황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롯데 자이언츠와 NC 다이노스에 대한 정보를 위반 주체의 소속집단과 위반 장소에 대한 정보로 제시하였다. 롯데 자이언츠와 NC 다이노스는 부산과 경남에 홈구장이 위치한 야구팀으로, 2017년도 포스트 시즌에서 3위와 4위를 결정하는 경쟁 경기를 하여 연구가 수행된 시점(2018년도)에서 경쟁의식이 높았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연구 2에서는 집단 간 경쟁 상황을 민감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야구 경기를 관람하는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규범 위반 사건들을 위반 주체의 소속집단(내집단-롯데 자이언츠 팬, 외집단-NC 다이노스 팬)과 위반 장소(내집단-사직구장, 외집단-마산구장) 정보를 달리하여 제시하였다. 연구 1과는 달리 연구 2에서는 참가자 내 설계를 이용하였다. 참가자 내 설계를 사용하면서 한 참가자가 응답해야 하는 문항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시나리오 개수를 열 개로 줄였다. 또한, 위반 규범의 분류에 대한 질문을 도덕-인습 분류의 준거 기준을 직접 측정하는 방식으로 단순화하였다.

방 법

www.kci.go.kr

연구 참가자

부산에 소재하는 대학교의 온라인 게시판과 학교 건물 내에서의 모집 공고문 게시를 통해 롯데 자이언츠 팬을 모집하였다. 모집 공고문을 보고 실험 참가 의사를 밝힌 롯데 자이언츠 팬 32명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참여 보상으로 음료 쿠폰(N = 22) 또는 심리학과 수업의 크레딧(N = 10)을 지급하였다. 집단 정체성 점화 과제에서 정답률이 80% 이하인 참가자 3명과 외집단(NC 다이노스 팬)보다 내집단(롯데 자이언츠 팬)에 더 큰 경쟁의식을 느낀다고 응답한 2명의 참가자를 제외한 27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최종 분석에 포함된 실험 참가자는 남성 19명, 여성 8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2세(SD = 2.51)였다. 인구학적 특성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성별과 연령을 통제한 분석 결과도 포함하였다.

연구 절차

연구 2는 2(위반 장소: 내집단, 외집단)×2(위반 주체의 소속집단: 내집단, 외집단) 참가자 내 설계로 수행되었으며 절차는 연구 1과 거의 동일하였다.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야구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야구 관람 행동에 대한 판단을 알아보는 것으로 연구 목적을 안내하였다. 참가자들은 실험실에 도착한 후 실험의 전반적 절차가 안내된 설명문을 읽고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연구 1과 마찬가지로 참가자들의 집단 정체성을 구성하는 여러 사회 집단 중에서 프로야구팀과 관련된 정체성을 점화하기 위한 과제를 수행한 뒤, 야구 경기 관람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열 개의 규범 위반 사건을 판단하는 도덕 판단 과제를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집단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질문에 응답하였다. 모든 과제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실시되었다.

도덕 판단 과제에서는 동일한 규범 위반 사건 시나리오를 위반 장소와 위반 주체의 소속집단 정보만 달리하여 네 차례 제시하였다. 동일 시나리오의 반복 제시 간격을 늘리고 과제 수행이 용이하도록 조건별로 블록을 나누어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제시 순서에 따른 영향을 통제하고자 라틴 방격법을 사용하여 각 블록이 제시되는 순서를 참가자마다 무선화하였다(Shaughnessy, Zechmeister, & Zechmeister, 2014/2016). 구체적으로, NC 다이노스 팬이 사직구장에서 위반한 사건을 A, NC 다이노스 팬이 마산구장에서 위반한 사건을 B, 롯데 자이언츠 팬이 사직구장에서 위반한 사건을 C, 롯데 자이언츠 팬이 마산구장에서 위반한 사건을 D라고 할 때, ADBC, BACD, CBDA, DCAB로 제시 순서를 균형화한 네 개의 실험 집단을 설정하였다.

집단 정체성 점화

연구 2에서는 두 개의 과제를 사용하여 야구 팬으로서의 집단 정체성을 일시적으로 점화하고자 하였다. 참가자들은 먼저 야구 선수 이름 맞히기 과제를 수행하였다. 이 과제에서 참가자들은 내집단인 롯데 자이언츠에 소속된 20명의 야구 선수의 얼굴과 등 번호를 보고, 제시된 선수의 이름을 알고 있는 만큼 작성하였다. 야구 선수 이름 맞히기 과제는 참가자들이 자신이 응원하는 팀의 야구 선수들을 떠올림으로써 롯데 자이언츠 팬으로서의 정체성을 점화하는 동시에 내집단에 대한 사전 지식을 측정하여 추후에 그 효과를 통제하려는 목적에서 실시하였다. 두 번째 절차로 야구팀 식별 과제를 수행하였다. 참가자들에게 2017년도 롯데 자이언츠와 NC 다이노스의 포스트시즌 경기에서 롯데 또는 NC 소속의 타자가 날아오는 공을 치기 직전의 장면을 제시한 뒤, 타자의 소속 팀을 식별하도록 하였다. 롯데 자이언츠와 NC 다이노스가 타자인 장면을 각 여섯 개씩 선별하여 열두 개의 장면을 사용하였으며, 각 장면은 무선적으로 두 번씩 제시되었다. 연구 1과 마찬가지로 연구 2 또한 참가자들이 실제로 소속된 집단을 이용하여 내

www.kci.go.kr

집단과 외집단을 구분하였으므로, 소속팀 또는 경쟁팀 관련 정보를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참가자들이 이미 지니고 있는 야구팬으로서의 집단 정체성을 일시적으로 점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도덕 판단 과제

연구 2에서는 경쟁 상황을 반영한 자연스러운 맥락을 위해 야구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열 개의 규범 위반 사례를 제시하였다(부록 Ⅱ). 규범 위반 사례는 연구 1과 동일하게 Turiel(1983)의 사회 영역 이론에서 제시한 도덕 영역과 사회 인습 영역의 정의를 반영하여 사회 인습 및 도덕 원칙과 관련된 사례를 골고루 포함하도록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야구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도덕 원칙 위반 사례로는 야구 관객과 시비가 붙어 폭력을 행사한 경우를, 사회 인습 위반 사례로는 경쟁 구단의 응원이 시작될 때 이를 방해하기 위해 야유를 하는 행위 등을 포함하였다. 연구 1에서와 마찬가지로 위반 규범의 분류는 다양한 유형의 규범 위반 사례들을 포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구자가 사전에 규범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롯데 자이언츠 팬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므로 롯데 자이언츠를 내집단으로, NC 다이노스를 외집단으로 하여 위반 주체 소속집단과 위반 장소 정보를 제시하였다. 위반 주체의 경우, 내집단원은 롯데 자이언츠 팬, 외집단원은 NC 다이노스 팬으로 제시하였다. 위반 장소는 롯데 자이언츠의 홈구장인 사직구장을 내집단 장소로, NC 다이노스의 홈구장인 마산구장을 외집단 장소로 제시하였다. 내집단과 외집단의 경쟁 상황을 강조하고자, 롯데 팬 또는 NC 팬이 두 팀 간의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사직구장 또는 마산구장을 방문하여 규범을 위반하는 상황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연구 2에서도 연구 1과 마찬가지로 위반 규범의 분류와 위반 행위에 대한 평가, 두 측면에서 도덕 판단을 측정하였다. 먼저, 위반 행위에 대한 평가를 위해 위반 행위가 얼마나 나쁜 행동인지(이야기에 등장한 주인공의 행동은 얼마나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전혀 나쁘지 않다-7:매우 나쁘다)를 7점 척도상에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위반 규범의 분류를 측정하는 문항은 연구 1과 동일한 개념적 정의를 따르되 각 준거 기준의 정의를 직접적으로 질문하였다. 첫째, 허용성은 연구 1과 동일한 문항을 사용하였다(이야기에 등장한 주인공의 행동은 얼마나 허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매우 허용되지 않는다-7:매우 허용된다). 둘째, 규칙 독립성은 차이점수를 사용하지 않고 규칙 유무에 따라 판단이 얼마나 달라질 것 같은지 직접적으로 물었다(이야기에 등장한 주인공의 행동을 판단할 때, 행동과 관련된 규칙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얼마나 판단이 달라질 것 같습니까?; 1:전혀 달라지지 않는다-7:매우 달라진다). 셋째, 일반성도 차이점수 대신에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정도를 직접적으로 물었다(이야기에 등장한 주인공 행동의 옳고 그름은 시대나 사회적 맥락,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하십니까?; 1:전혀 달라지지 않는다-7:매우 달라진다). 허용성, 규칙 독립성, 일반성 질문에 대한 응답을 표준 점수로 환산하여 합산한 점수를 구했다. 표준 점수는 참가자 내에서 계산되었다.

결과 해석의 편의상 세 기준 점수의 합이 클수록 도덕 원칙에 해당하도록 합계 점수에 -1을 곱하여 부호를 바꾼 뒤 도덕-인습 분류 점수로 사용하였다. 즉, 연구 1과 동일하게 도덕-인습 분류 점수가 높을수록 도덕 원칙에 가깝고 점수가 낮을수록 사회 인습에 가깝게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집단에 대한 태도 측정

연구 2에서 선정한 내집단과 외집단이 실제로 경쟁 관계에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후의 분석에서 집단에 대한 태도가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내집단과 외집단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

www.kci.go.kr

였다. 연구 1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문항을 이용하여 내집단(롯데 자이언츠 팬)과 외집단(NC 다이노스 팬)에 대해 느끼는 호감도, 유사성, 경쟁의식을 7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결과 및 논의

집단에 대한 태도

연구 2에서는 경쟁 관계에 있는 집단 정보가 도덕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경쟁 관계에 있는 프로야구팀을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제시하였다. 참가자들이 실제로 외집단(NC 다이노스)과 내집단(롯데 자이언츠)을 경쟁 관계로 인식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내집단원(롯데 자이언츠 팬)과 외집단원(NC 다이노스 팬)에 대하여 느끼는 유사성, 호감도, 경쟁의식에 대한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참가자들은 외집단원(M = 3.148, SD = 1.68)에 비해 내집단원(M = 5.667, SD = 1.301)을 자신과 더 유사하다고 느꼈다[$t(26)$ = -6.023, p < .001]. 또한, 외집단원(M = 3.333, SD = 1.144)보다 내집단원(M = 5.667, SD = 1.177)에게 더 호감을 느꼈다[$t(26)$ = -7.389, p < .001]. 마지막으로 내집단원(M = 1.741, SD = 1.023)에 비해 외집단원(M = 3.63, SD = 1.597)에 대하여 더 큰 경쟁의식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t(26)$ = 5.871, p < .001]. 이러한 결과는 참가자들이 실제로 외집단에 대하여 우호적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경쟁 관계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추후 분석에서는 집단에 대한 태도 차이를 통제하고자 외집단원과 내집단원에 대한 유사성, 호감도, 경쟁의식 점수의 차이 값을 공변량으로 투입하였다.

한편, 집단 정체성 점화 과제의 평균 정답률은 약 98%(평균 정답 개수 = 23.444, SD = 0.751)로 참가자들이 내집단과 외집단을 정확하게 구분하였으며 과제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야구 선수 이름 맞히기 과제의 평균 정답률은 약 63%(평균 정답 개수 = 12.667, SD = 7.093)로, 참가자마다 내집단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에 큰 개인차가 있었다. 내집단에 대한 사전 지식의 차이가 응답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추후 분석에서는 야구 선수 이름 맞히기 과제 점수를 공변량으로 투입하였다.

위반 주체의 소속집단과 위반 장소에 따른 도덕 판단의 차이

비경쟁적 집단을 사용한 연구 1과는 달리 경쟁적 집단을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제시한 연구 2에서는 외집단 위협으로부터 내집단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집단 정보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따라서 내집단 장소에서 발생한 위반에 초점을 두어 내집단원보다 외집단원의 위반을 도덕 원칙에 가깝게 판단하고(가설 1-2), 내집단원보다 외집단원의 도덕 원칙 위반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가설 2-2) 외집단 폄하의 방향으로 위반 주체의 소속집단과 위반 장소 정보를 고려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모든 분석에서 3IQR(Inter-Quartile Range)을 넘어선 극단치를 제외하였다. 열 개의 시나리오에 대한 위반 규범의 분류와 위반 행위 평가의 평균값은 부록 Ⅳ에 제시되었다.

위반 규범의 분류

외집단원이 내집단 장소에서 규범을 위반하는 경우, 내집단의 문화를 몰라서 저지른 실수가 아니라 보편적인 도덕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외집단원에게 더 부정적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반면, 외집단원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내집단 장소에서 내집단원이 규범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상대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사회 인습으로 분류함으로써 호의적 평가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따라서 경쟁 관계에 있는 외집단원이 내집단 장소에서 위

www.kci.go.kr

반한 규범을 내집단원이 위반한 규범보다 더 도덕 원칙에 가까운 것으로 분류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가설 1-2).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외집단과 내집단에 대한 세 가지 태도(유사성, 호감도, 경쟁의식)의 차이 값과 야구 선수 이름 맞히기 과제 점수를 공변량으로 투입하고 각 위반 사건에 대한 도덕-인습 분류 점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2(위반 주체의 소속집단: 내집단, 외집단)×2(위반 장소: 내집단, 외집단) 반복측정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가설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위반 주체의 소속집단과 위반 장소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F(1,22) = 7.997, p = .010, η^2 = .267](그림 4). 연구 1과는 반대로 내집단 장소에서 발생한 위반 사건에 대하여, 외집단원(NC 다이노스 팬)이 위반한 규범(M = 0.186, SE = 0.121)을 내집단원(롯데 자이언츠 팬)이 위반한 규범(M = -0.251, SE = 0.120)보다 도덕 원칙에 가깝게 판단하는 경향성이 관찰되었다[F(1,22) = 4.248, p = .051, η^2 = .162]. 반면, 위반 장소가 외집단 장소(마산구장)일 때는 위반 주체가 외집단원인 경우(M = -0.04, SE = 0.130)와 내집단원인 경우(M = 0.104, SE = 0.110)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F(1,22) = 0.468, p = .501, η^2 = .021].

위반 주체가 내집단원일 때는 내집단 장소(M = -0.251, SE = 0.120)에서 위반한 규범을 외집단 장소(M = 0.104, SE = 0.110)에서 위반한 규범보다 사회 인습에 가깝게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1,22) = 7.338, p = .013, η^2 = .250]. 이러한 결과는 내집단원에게 외집단원보다 더 상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외집단보다 덜 부정적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위반 주체가 외집단원일 때는 내집단 장소(M = 0.186, SE = 0.121)에서 위반한 경우와 외집단 장소(M = -0.04, SE = 0.130)에서 위반한 경우에 따른 위반 규범의 분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F(1,22) = 1.882. p = .184, η^2 = .079]. 위반 주체의 소속집단과 위반 장소의 주 효과도 유의하지 않았다[F(1, 22) = 1.076, p = .311, η^2 = .047, F(1, 22) = 0.031, p = .863, η^2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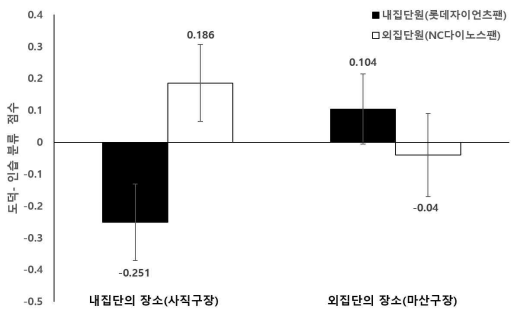

그림 4. 연구 2의 위반 장소와 위반 주체 소속집단에 따른 위반 규범의 분류. 오차막대는 표준오차임.

연구 2에서 성별과 연령을 공변량으로 포함하는 경우, 위반 주체의 소속집단과 위반 장소의 상호작용이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으며, 위반 장소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20) = 6.686, p = .018, η^2 = .251]. 성별 효과를 이해하기 위하여 남성과 여성 참가자를 구분하여 위의 분석을 다시 수행하였다. 남성 참가자(N = 19)의 경우 가설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위반 주체의 소속집단과 위반 장소의 상호작용 경향성이 나타났다[F(1,14) = 3.413, p = .086, η^2 = .196]. 남성 참가자들은 내집단원이 외집단 장소(M = 0.216, SE = 0.140)에서 위반하는 것보다 내집단 장소(M = -0.201, SE = 0.153)에서 위반한 규범을 사회 인습에 가깝다고 판단하였다[F(1,14) = 7.061, p = .019, η^2 = .335]. 그러나 외집단원이 위반한 규범에 대한 판단에서는 내집단 장소(M = -0.025, SE = 0.113)와 외집단 장소(M = 0.010, SE = 0.167)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F(1,14) = 0.059, p = .811, η^2 = .004]. 위반 주체의 소속집단과 위반 장소의 주 효과도 유의하지 않았다[F(1,14) = 0.025, p = .876, η^2 = .002, F(1,14) = 2.088, p = .170, η^2 = .130].

www.kci.go.kr

여성 참가자(N = 8)의 경우 위반 주체 소속집단의 주 효과가 유의하였으며[F(1,3) = 10.356, p = .049, η^2 = .775], 위반 장소의 주 효과와 위반 장소 및 위반 주체 소속집단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F(1,3) = 0.036, p = .862, η^2 = .012, F(1,3) = 1.987, p = .253, η^2 = .398]. 여성 참가자들은 위반 장소와 무관하게 내집단원이 위반한 규범(M = -0.264, SE = 0.042)보다 외집단원이 위반한 규범(M = 0.264, SE = 0.042)을 도덕 원칙에 가깝게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림 4의 상호작용 효과가 주로 남성 참가자들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여성 참가자도 외집단원이 위반한 규범을 내집단원이 위반한 규범에 비해서 더 도덕 원칙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하여 외집단원에게 내집단원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쟁적 상황에서는 외집단원에게 불리한 판단을 할 것이라는 가설의 방향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그러나 여성 참가자의 숫자는 8명으로 매우 적기 때문에 통계적 해석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위반 행위에 대한 평가

경쟁적 집단 맥락에서는 외집단 위협으로부터 내집단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내집단 장소에서 내집단원보다 외집단원이 규범을 위반하였을 때, 도덕 원칙 위반을 사회 인습 위반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가설 2-2). 먼저, 집단 정보가 전반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각 참가자의 열 가지 위반 행위 평가 점수의 평균을 종속변수로 하고 외집단과 내집단에 대한 세 가지 태도(유사성, 호감도, 경쟁의식)의 차이 값과 야구 선수 이름 맞히기 과제 점수를 공변량으로 투입한 2(위반 주체의 소속집단: 내집단, 외집단)×2(위반 장소: 내집단, 외집단) 반복측정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위반 주체의 소속집단 및 위반 장소의 주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F(1,22) = 0.017, p = .897, η^2 = .001, F(1,22) = 1.519, p = .231, η^2 = .065], 위반 주체의 소속집단과 위반 장소에 따른 상호작용도 유의하지 않았다[F(1, 22) = 0.287, p = .597, η^2 = .013]. 성별과 나이를 통제한 후에도 결과는 동일하였다.

위반 규범의 분류에 따른 위반 행위의 평가가 집단 정보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 1과 동일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험 조건별로 도덕-인습 분류 점수가 위반 행위의 평가를 예측하는 선형함수를 도덕 판단 모형으로 하여 참가자마다 표준화 회귀계수를 추정한 뒤, 외집단과 내집단에 대한 3가지 태도(유사성, 호감도, 경쟁의식)의 차이 값과 야구 선수 이름 맞히기 과제 점수를 공변량으로 투입한 2(위반 주체의 소속집단: 내집단/외집단)×2(위반 장소: 내집단/외집단) 반복측정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3IQR을 넘어선 극단치 두 개는 제외되었다.

분석 결과, 위반 주체의 소속집단과 위반 장소의 주 효과[F(1,20) = 0.756, p = .395, η^2 = .036, F(1,20) = 0.00, p = .991, η^2 = .000] 및 위반 주체의 소속집단과 위반 장소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았다[F(1,20) = 1.191, p = .288, η^2 = .056]. 성별과 나이를 통제하였을 때도 결과는 동일하였다.

연구 2에서는 경쟁적 상황에 있는 집단에 대한 정보가 위반 규범의 분류와 위반 행위의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연구 1에서 우호적 외집단에게 보이는 내집단의 긍정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집단 정보가 작용하였던 것과는 달리, 경쟁적 상황에서는 외집단 위협에 주목하여 내집단 장소에서 발생한 외집단원의 위반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성이 관찰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위반 규범의 분류에서는 내집단 장소에서 내집단원이 위반한 규범보다 외집단원이 위반한 규범을 도덕 원칙에 더 가깝게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가설 1-2). 그러나 위반 행위의 평가와 관련해서는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가 관

www.kci.go.kr

찰되지 않았다.

종합논의

본 연구에서는 집단 정보를 위반 주체의 소속집단과 위반 장소에 대한 정보로 구분하여, 각 정보가 도덕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았다. 연구 1에서는 연구 참가자들의 소속 대학교를 집단 정보로 제시하여 비경쟁적 상황에서 집단 정보가 도덕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고, 연구 2에서는 프로야구팬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경쟁적 상황에서 집단 정보가 도덕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위반 규범의 분류와 위반 행위의 평가, 두 가지 측면에서 도덕 판단을 측정하였으며, 규범의 분류에 따른 평가의 차이 또한 고려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1의 비경쟁적 집단 맥락에서는 위반 주체의 소속집단이 아닌 장소에서 위반한 규범은 사회 인습에 가까운 것으로 분류되어 상대적 기준에 따라 판단되는 일반적 경향성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성은 외집단원의 위반에 대해서만 유의하였다. 외집단원의 위반과는 달리 내집단원이 위반한 규범의 분류에서는 장소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집단 정보가 위반 행위의 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위반 규범의 분류 결과에 따라 달라졌다. 참가자들은 일반적으로 도덕 원칙에 가까운 규범을 위반한 행위를 사회 인습에 가까운 규범을 위반한 행위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러한 경향은 내집단원이 내집단 장소보다는 외집단 장소에서 규범을 위반하였을 때 더 강하게 나타났다.

연구 1의 결과는 비경쟁적 맥락에서 집단 정보가 내집단원의 긍정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먼저, 규범의 분류에서 내집단원의 위반에 대해 위반 장소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외집단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에 상대적 기준을 적용하여 너그럽게 판단하는 일반적 경향성이 외집단 장소에서 내집단원의 위반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현상으로 인해 상쇄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위반 행위에 대한 평가에서도 내집단원이 도덕 원칙에 가까운 규범을 위반한 경우 내집단 장소보다는 외집단 장소에서 위반하는 것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외집단 장소에서 내집단원이 도덕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내집단 전체의 도덕성에 대한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내집단의 긍정적 정체성을 해친다. 검은 양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들의 해석을 따르자면, 외집단 장소에서 도덕 원칙을 위반한 내집단원의 행동을 더욱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내집단과 자신의 긍정적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동기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Abrams 등, 2003; Marques 등, 1988; Marques 등, 1998a).

둘째, 연구 2의 경쟁적 맥락에서는 내집단 장소에서 외집단원이 위반한 규범을 내집단원이 위반한 규범에 비해 도덕 원칙에 가깝게 판단하였으며, 내집단원이 내집단 장소에서 위반한 규범을 외집단 장소에서 위반한 규범에 비해 사회 인습에 가깝게 판단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외집단이 내집단의 안녕에 위협이 되는 적대적 상황에서는 내집단-외집단 차이가 내집단 선호와 외집단 폄하의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선행 연구의 제안(Brewer, 1999; Duckitt & Mphuthing, 1998; Parker & Janoff-Bulman, 2013)과 일치한다. 내집단 장소에서 외집단원이 위반한 규범을 내집단원이 위반한 동일한 규범보다 도덕 원칙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함으로써 외집단원의 행위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이는 부정적 행동을 하는 외집단원을 폄하하고 배척함으로써 내집단을 보호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대로 내집단원이 내집단 장소에서 위반한 규범을 외집단 장소에서 위반한 규범보다 사회 인습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한 결과는 내집단 장소에서 내집단원에게 더 너그러운 기준을 적용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내집단 선호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연구 1과 달리 연구 2에서는 위반 행위의 평

www.kci.go.kr

가에서 집단 정보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연구 1에 사용된 위반 행위에 비해 연구 2에서 사용된 위반 행위에 대한 평가의 변산성이 낮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연구 1과 연구 2에서 사용된 위반 행위 평가 점수의 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 1에 사용된 28개의 위반 행위 평가 점수의 평균과 연구 2에서 사용된 10개의 위반 행위 평가 점수 평균의 분포를 비교하였다. Mann-Whitney 검정 결과, 연구 1에 사용된 위반 행위의 평가 분포와 연구 2에 사용된 위반 행위의 평가 분포는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Mann-Whitney U = 75, p = .031). 연구 2의 시나리오(Mdn = 5.301, 범위 4.28~6.77)는 연구 1의 시나리오(Mdn = 4.487, 범위 1.64~6.21)에 비하여 심각성이 높은 사건들이 포함되었으며 변산이 더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부록 Ⅰ, 부록 Ⅱ 참고). 또 다른 가능성으로, 경쟁적 상황에서는 외집단원의 위반 행위로 인한 내집단 안녕에 대한 위협과 내집단원의 위반으로 인한 내집단 질서 유지에 대한 위협의 효과가 모두 작용하여 집단 정보의 영향이 상쇄되었을 수 있다. 다양한 위반 사례를 포함하고 비경쟁 상황과 경쟁 상황을 직접 비교해볼 수 있는 후속 연구를 통하여 기대한 결과가 관찰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도덕 판단에서 집단 정보가 중요하게 고려된다는 사실은 많은 선행 연구들을 통해 제안되어 왔으나 위반 주체의 소속집단과 위반 장소의 효과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아 서로 다른 예측과 설명을 제시해 왔다(Abrams 등, 2003; Fessler 등, 2015; Marques 등, 1988).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다루지 않았던 위반 주체 소속집단과 위반 장소 정보를 구분하여 도덕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집단 간 상황에서 긍정적 집단 정체성 유지와 외집단 위협으로부터의 내집단 보호라는 서로 다른 동기를 고려하여 도덕 판단을 예측할 때, 내집단원과 외집단원이 규범을 위반하는 장소가 내집단 장소인지 외집단 장소인지는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는 위반 주체의 소속집단과 위반 장소의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먼저, 연구 1에서는 위반 주체의 소속집단이 내집단인 경우에만 위반 규범의 분류에 따른 위반 행위의 평가가 위반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연구 1과 연구 2에서 모두 위반 규범의 분류에서 위반 장소와 위반 주체 소속집단의 상호작용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위반 주체의 소속집단과 위반 장소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도덕 판단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며, 집단 정보를 고려할 때 위반 주체의 소속집단과 위반 장소의 효과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위반 주체의 소속집단과 위반 장소 정보를 구분함으로써 도덕 지역주의의 예측 또한 위반 주체의 소속집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였다. Fessler 등(2015)은 위반 사건이 가까운 장소(내집단 장소)에서 발생할 때 더 엄격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 1과 연구 2에서 모두 위반 주체의 소속집단에 따라 위반 장소의 효과가 달라졌다. 연구 1의 위반 사건 분류에서 전반적으로 외집단 장소에서 위반한 규범을 도덕 원칙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하여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도덕 지역주의의 예측과 반대된다. 연구 1의 위반 행위에 대한 평가에서도 내집단원이 외집단 장소에서 도덕 원칙을 위반한 경우 내집단 장소에서 위반한 것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도덕 지역주의의 예측과 맞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도덕 판단에서 위반 장소의 영향을 연구할 때 위반 주체 소속집단의 효과를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위반 규범의 분류와 위반 행위의 평가라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도덕 판단을 측정하였다. 이 중에서 위반 규범의 분류는 도덕 판단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인 동시에 도덕 판단 연구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www.kci.go.kr

도덕-인습 구분에 대한 논쟁과도 관련되어있다. 도덕 원칙과 사회 인습의 구분이 명확하고 안정적인지, 개인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설선혜, 이승민, 2018; Leenders & Brugman, 2005; Wright 등, 2008),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각 참가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규범의 분류를 연속 점수로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1과 연구 2는 위반 주체 소속집단과 위반 장소에 따라서 위반 규범의 분류가 달라지며, 그 양상이 집단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도덕-인습 구분이 보편성 차원에서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제안하는 선행 연구들(Leenders & Brugman, 2005; Wright 등, 2008)과 일치한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도덕 판단에서 나타나는 위반 주체의 소속집단과 위반 장소의 효과를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었으나, 위반 규범의 분류와 집단 맥락(비경쟁적 상황과 경쟁적 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집단 정보의 영향을 확인하였다는 것 또한 기존 연구와 구별되는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참가자 개개인이 분류한 위반 규범에 따른 위반 행위에 대한 평가의 차이를 탐지하기 위하여 선형함수를 사용한 의사결정 모형을 추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연속적 차원상에서 집단 정보가 도덕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탐색해볼 수 있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규범의 특성에 따른 도덕 판단의 차이를 살펴보는 후속 연구들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록 예상하지는 못했으나 집단 간 경쟁 상황에 따른 도덕 판단에서 성차가 관찰되었던 결과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비경쟁 상황(연구 1)에서는 유의한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쟁 상황(연구 2)에서는 성별에 따라 집단 정보가 위반 규범의 분류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졌다. 연구 2의 여성 참가자들은 위반 장소와 무관하게 내집단원이 위반한 규범보다 외집단원이 위반한 규범을 도덕 원칙으로 판단하였지만, 남성 참가자들은 위반 주체의 소속집단과 위반 장소 정보를 모두 고려하여 내집단원이 위반한 규범의 분류에서만 위반 장소의 효과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 간 경쟁 상황이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선행 연구(Van Vugt, De Cremer, & Janssen, 2007)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성차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참가자 수가 적고, 여성 참가자의 비율이 낮아 검정력이 약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경쟁 상황에서 집단 정보가 도덕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후속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제한점과 관련하여 후속 연구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집단 정보의 효과가 주요 관심사였으므로 연구 설계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하여 비경쟁적 맥락과 경쟁적 맥락을 직접 비교하지 않고 연구 1과 연구 2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연구 1에서는 참가자 간 설계, 연구 2에서는 참가자 내 설계를 사용하고, 시나리오의 내용과 규범 위반이 발생하는 사회적 맥락 등이 크게 달라 직접적으로 두 연구의 결과를 비교할 수 없었다. 집단 맥락의 효과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집단 간 관계를 주요 독립변인으로 하여 비경쟁 상황과 경쟁 상황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연구 설계가 필요하다. 둘째, 연구 2의 경우 실험 조건에 따른 도덕 판단의 차이를 민감하게 탐지하기 위하여 참가자 내 설계를 이용하였으나 실험 참가자가 모든 실험 조건을 경험하게 됨에 따라 응답의 편향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참가자 내 설계라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분석에 최종적으로 포함된 참가자 수가 27명으로 많지 않았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 연구 1과 동일한 참가자 간 설계를 이용한 연구와 더 많은 참가자를 대상으로 동일 설계를 적용하는 반복 검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실험 집단 간의 차이만을 검증하였으므로, 일반적 도덕 판단 경향성과 비교가 어렵

www.kci.go.kr

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통제 조건과 실험 조건의 비교를 통해 집단 정보에 따른 도덕 판단과 일반적 도덕 판단의 차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규범의 유형을 보편성 차원에서만 고려하였다. 그러나 도덕-인습 구분의 또 다른 중요한 기준으로 도덕 판단의 정당화 사유가 있다. 따라서 위반한 규범의 분류뿐만 아니라 정당화 사유에서도 위반 주체의 소속집단과 위반 장소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비경쟁 상황에 있는 외집단 장소에서 내집단원이 위반한 규범을 사회 인습으로 판단하였다면, 판단의 사유에서도 사회 인습과 관련된 특징들이 언급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도덕 판단에서 위반 행위에 대한 평가를 고려할 때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 차원에서의 평가뿐만 아니라 위반 행위의 판단에 수반되는 정서도 중요하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사회 인습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수치심을, 도덕 원칙 위반의 경우 죄책감을 주요 정서로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Elster, 2009). 따라서 위반 주체의 소속집단과 위반 장소에 대한 정보가 위반 사건에 대해 느끼는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는 집단 간 관계에 따라서 집단 정보가 도덕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이 달라지는 이유를 내집단의 긍정적 정체성 유지와 외집단 위협으로부터의 보호라는 서로 다른 동기가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러나 이는 선행 연구 결과들로부터 유추한 것으로 집단 정보가 도덕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를 직접적으로 측정하지는 않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실제 도덕 판단 전과 후의 집단 정체성이나 외집단에 대한 태도 등을 직접적으로 측정하거나 뇌 영상 기법 등을 사용하여 집단 정보가 도덕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적, 인지적, 신경학적 기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므로 연구 결과에 위계질서와 조화를 강조하는 집합주의 문화가 반영되었을 수 있다. 보편적 도덕 원칙과 내적 기준을 중시하는 존엄(dignity) 문화에서는 집단 정보가 도덕 판단에 영향을 덜 미치거나, 도덕-인습의 분류가 더 안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문화 비교 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발견이 한국 문화에 특수한 현상인지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집단 정보를 위반 주체의 소속집단과 위반 장소로 구분하여 도덕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도덕 판단에서 집단 정보의 효과가 집단 간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옳고 그름을 규정하는 규범 이론(normative theory) 이외의 상황 정보들이 사람들의 도덕 판단을 편향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실제로 우호적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에서 자국민이 도덕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크게 비난하거나, 비우호적 국가 출신의 외국인이 자국에서 규범을 위반할 때 더욱 크게 비난하는 것과 같은 사회 현상과도 잘 일치한다. 도덕 판단에서 나타나는 내집단-외집단 차이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통해 성별, 세대, 계층, 문화 간 갈등과 같은 다양한 집단 관련 이슈들이 중요해지고 있는 최근의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편향을 예측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박영신 (2001). 한국 아동들의 도덕적 규칙과 사회관습적 규칙에 대한 이해의 발달과 그 특징.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2), 83-104.

설선혜, 이민우, 김학진 (2014). 이타적 강화학습 과제를 이용한 이타성의 측정.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3(2), 467-492.

설선혜, 이승민 (2018). 도덕 판단에서 나타나는 도덕-인습 구분에 대한 논쟁과 함의. 인지과학, 29(2), 137-160. doi: 10.19066/cogsci.2018.29.2.004

Abrams, D., Rutland, A., & Cameron, L. (2003).

www.kci.go.kr

The development of subjective group dynamics: Children's judgments of normative and deviant in group and out group individuals. *Child Development*, *74*(6), 1840-1856. doi: 10.1046/j.1467-8624.2003.00641.x

Balliet, D., Wu, J., & De Dreu, C. K. (2014). Ingroup favoritism in cooperation: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40*(6), 1556-1581. doi: 10.1037/a0037737

Brambilla, M., Sacchi, S., Pagliaro, S., & Ellemers, N. (2013). Morality and intergroup relations: Threats to safety and group image predict the desire to interact with outgroup and ingroup member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9*(5), 811-821. doi: 10.1016/j.jesp.2013.04.005

Brewer, M. B. (1999). The psychology of prejudice: Ingroup love and outgroup hate?. *Journal of Social Issues, 55*(3), 429-444. doi: 10.1111/0022-4537.00126

Choi, J. K., & Bowles, S. (2007). The coevolution of parochial altruism and war. *Science*, *318*(5850), 636-640. doi: 10.1126/science.1144237

Cushman, F., Sheketoff, R., Wharton, S., & Carey, S. (2013). The development of intent-based moral judgment. *Cognition*, *127*(1), 6-21. doi: 10.1016/j.cognition.2012.11.008

De Dreu, C. K., Greer, L. L., Handgraaf, M. J., Shalvi, S., Van Kleef, G. A., Baas, M., ... & Feith, S. W. (2010). The neuropeptide oxytocin regulates parochial altruism in intergroup conflict among humans. *Science*, *328*(5984), 1408-1411. doi: 10.1126/science.1189047

Duckitt, J., & Mphuthing, T. (1998). Group identification and intergroup attitudes: a longitudinal analysis in South Africa.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1), 80-85. doi: 10.1037/0022-3514.74.1.80

Elster, J. (2009). Norms. In P, Hedström & P, Bearman. (Eds.), *The Oxford Handbook of Analytical Sociology* (pp. 195-217).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Fessler, D. M., Barrett, H. C., Kanovsky, M., Stich, S., Holbrook, C., Henrich, J., ... & Pisor, A. C. (2015). Moral parochialism and contextual contingency across seven societies. *Proc. R. Soc. B*, *282*(1813), 20150907. doi: 10.1098/ rspb. 2015.0907

Haidt, J. (2001). The emotional dog and its rational tail: a social intuitionist approach to moral judgment. *Psychological Review*, *108*(4), 814-834. doi: 10.1037/0033-295X.108.4.814

Kelly, D., Stich, S., Haley, K. J., Eng, S. J., & Fessler, D. M. (2007). Harm, affect, and the moral/conventional distinction. *Mind* & *Language*, *22*(2), 117-131. doi:10.1111/j.1468-0017.2007.00302.x

Kohlberg, L. (1969). Stage and sequence: The cognitive-developmental approach to socialization. In D. A. Goslin (Ed.), *Handbook of socialization theory and research* (pp. 347-480). Chicago: Rand McNally.

Leach, C. W., Bilali, R., & Pagliaro, S. (2015). Groups and morality. In M. Mikulincer, P. R. Shaver, J. F. Dovidio, & J. A. Simpson (Eds.), *APA handbooks in psychology. APA handbook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2. Group processes* (pp. 123-149). Washington, DC, U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doi: 10.1037/14342-005

Leach, C. W., Ellemers, N., & Barreto, M. (2007). Group virtue: the importance of morality (vs. competence and sociability) in the positive evaluation of in-gro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3*(2), 234-249. doi: 10.1037/0022-3514.93.2.234

Leenders, I., & Brugman, D. (2005). Moral/non moral domain shift in young adolescents in relation to delinquent behaviour. *British Journal*

www.kci.go.kr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3*(1), 65-79. doi: 10.1348/026151004X20676

Lewis, G. J., Kandler, C., & Riemann, R. (2014). Distinct heritable influences underpin in-group love and out-group derogation.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5*(4), 407-413. doi: 10.1177/1948550613504967

Liberman, Z., Howard, L. H., Vasquez, N. M., & Woodward, A. L. (2018). Children's expectations about conventional and moral behaviors of ingroup and outgroup members.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165*, 7-18. doi: 10.1016/j.jecp.2017.03.003

Marques, J. M., Yzerbyt, V. Y., & Leyens, J. P. (1988). The "black sheep effect": Extremity of judgments towards ingroup members as a function of group identificatio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8*(1), 1-16. doi: 10.1002/ejsp.2420180102

Marques, J. M., Paez, D., & Abrams, D. (1998a). Social identity and intragroup differentiation as subjective social control. In S. Worchel, J. F. Morales, D. Páez, & J.-C. Deschamps (Eds.), *Social identity: International perspectives* (pp. 124-141). Thousand Oaks, CA, US: Sage Publications, Inc. doi: 10.4135/9781446279205.n9

Marques, J. M., Abrams, D., Paez, D., & Martinez-Taboada, C. (1998b). The role of categorization and in-group norms in judgments of groups and their memb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4), 976-988. doi: 10.1037/0022-3514.75.4.976

Mulvey, K. L., Hitti, A., Rutland, A., Abrams, D., & Killen, M. (2014). When do children dislike ingroup members? Resource allocation from individual and group perspectives. *Journal of Social Issues, 70*(1), 29-46. doi: 10.1111/josi.12045

Parker, M. T., & Janoff-Bulman, R. (2013). Lessons from morality-based social identity: The power of outgroup "hate," not just ingroup "love". *Social Justice Research*, *26*(1), 81-96. doi: 10.1007/s11211-012-0175-6

Ratner, K. G., Dotsch, R., Wigboldus, D. H., van Knippenberg, A., & Amodio, D. M. (2014). Visualizing minimal ingroup and outgroup faces: Implications for impressions, attitudes, and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6*(6), 897-911. doi: 10.1037/a0036498

Riek, B. M., Mania, E. W., & Gaertner, S. L. (2006). Intergroup threat and outgroup attitudes: A meta-analytic review.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0*(4), 336-353. doi: 10.1207/s15327957pspr1004_4

Rutland, A., Killen, M., & Abrams, D. (2010). A new social-cognitive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prejudice: The interplay between morality and group identity.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5*(3), 279-291. doi: 10.1177/1745691610369468

Schmidt, M. F., & Tomasello, M. (2012a). Young children enforce social norm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1*(4), 232-236. doi: 10.1177/0963721412448659

Schmidt, M. F., Rakoczy, H., & Tomasello, M. (2012b). Young children enforce social norms selectively depending on the violator's group affiliation. *Cognition, 124*(3), 325-333. doi: 10.1016/j.cognition.2012.06.004

Shaughnessy, J. J., Zechmeister, E. B., & Zechmeister, J. S. (2016). 사회과학에서의 연구방법론 [Research methods in psychology 10th Edition]. (조영일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전은 2014년에 출판)

Shultz, T. R., Wright, K., & Schleifer, M. (1986). Assignment of moral responsibility and

www.kci.go.kr

punishment. *Child Development*, *57*(1), 177-184. doi: 10.2307/1130649

Turiel, E. (1983). *The development of social knowledge: Morality and convention.*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doi: 10.2307/3121515

Turiel, E. (2008). Thought about actions in social domains: Morality, social conventions, and social interactions. *Cognitive Development, 23*(1), 136-154. doi: 10.1016/j.cogdev.2007.04.001

Van Vugt, M., De Cremer, D., & Janssen, D. P. (2007). Gender Differences in Cooperation and Competition: The Male-Warrior Hypothesis. *Psychological Science*, *18*(1), 19-23. doi: 10.1111/j.1467-9280.2007.01842.x

Wojciszke, B., Bazinska, R., & Jaworski, M. (1998). On the dominance of moral categories in impression form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4*(12), 1251-1263. doi: 10.1177/01461672982412001

Wright, J. C., Cullum, J., & Schwab, N. (2008). The cognitive and affective dimensions of moral conviction: Implications for attitudinal and behavioral measures of interpersonal toleran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4*(11), 1461-1476. doi: 10.1177/ 0146167208322557

1 차원고접수 : 2018. 10. 15.
수정원고접수 : 2019. 01. 16.
최종게재결정 : 2019. 02. 25.

www.kci.go.kr

韓國心理學會誌: 社會 및 性格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019, Vol. 33, No. 1, 19-52
https://doi.org/10.21193/kjspp.2019.33.1.002

Ingroup-outgroup difference in moral judgment: The effect of group membership of the transgressor and the location of transgression

Seungmin Lee **Sunhae Sul**

Department of Psych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

Social norms play a fundamental role in the survival of a group and the well-being of the group members. Therefore, people consider group information important when they make judgment on norm violation. The current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group information in the moral judgment under non-competitive(Study 1) and competitive(Study 2) contexts. Specifically, w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the transgressor's group membership(ingroup vs. outgroup) and the physical location where the transgression has occurred(ingroup vs. outgroup). Moral judgment was measured using a moral-conventional task and moral evaluation task. In Study 1, we used participants' affiliated university and a nearby university to manipulate the group information and asked participants to evaluate hypothetical norm violations that were assumed to happen in college life. We found that outgroup member's transgression occurred in the ingroup territory than in the outgroup territory was regarded as conventional than moral, whereas the moral-conventional judgment of ingroup member's transgression was not affected by the physical location. Participants evaluated ingroup member's moral violation occurred in the outgroup territory more negatively than that occurred in the ingroup territory. In Study 2, we invited a group of baseball fans and manipulated the group information using the context of a game against a rival team, in order create a competitive context. Contrast to Study 1, Study 2 showed that outgroup member's transgression in the ingroup's territory was judged as moral than conventional, compared to ingroup member's transgression. Our findings suggest that the transgressor's group membership and the physical location of the transgression can have different effects on moral judgment under non-competitive and competitive contexts.

Key words : moral judgment, ingroup-outgroup difference, black sheep effect, moral parochialism, moral-conventional distinction

www.kci.go.kr

부록 I

연구 1에서 사용된 위반 시나리오

연구 1에서는 다음과 같이 28가지의 위반 시나리오를 제작하여 사용하였으며, 실험 조건에 따라 위반 주체의 소속집단과 위반 장소를 제시하였다.

1. 대학생 A는 학과 선배로부터 한 전공과목의 중간고사 족보를 받아 공부하였다. 중간고사 시험은 족보의 문제와 비슷하게 출제되었다. A는 족보를 통해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다.

2. 대학생 B는 학과 사무실에서 A4용지를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것을 보았다. 어느 날, B는 수업시간에 연습장으로 활용할 종이가 없다는 것이 생각났다. 그래서 학과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A4용지 중 50장 정도를 연습장으로 쓰기 위해 가져갔다.

3. 대학생 F는 학과 졸업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어느 날, F는 같은 수업을 듣는 선배로부터 졸업한 지 오래된 논문을 수정해서 제출하면 된다는 말을 들었다. 선배로부터 이 말을 들은 F는 3년 전에 졸업한 선배에게 연락하여 졸업 논문을 받았고, 이를 수정하여 제출하였다.

4. 대학생 L은 학과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L은 중간고사 기간에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여 조교 선생님께 중간고사 기간 중 하루를 빠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L은 출근부에 해당 요일에 근무한 것으로 입력하였다.

5. 대학생 Y는 학기가 시작되기 전 교수계획표를 통해 수업에서 사용할 전공 서적을 확인하였다. Y는 도서를 선점하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바로 대여를 하였다. 전공 도서를 빌린 Y는 전공 서적을 구입하는 대신에 빌린 책을 한 학기 동안 반납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6. 대학생 U는 강의실에서 누군가가 두고 간 전공 서적을 발견하였다. 해당 전공 서적은 U의 수업에서 필요한 책이었다. 그래서 U는 전공 책을 구매하지 않고, 습득한 책을 사용하였다.

7. 대학생 C는 한 동아리에 가입했다. 그는 17학번 신입생들을 소집하여 단합을 목적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신고식을 실시하였다. C는 기합을 주기 위해 동아리 신입생에게 PT 체조, 쪼그려 뛰기, 엎드려뻗쳐를 시켰다.

8. 대학생 L은 자유분방한 성격이다. L이 소속된 학과에서는 선후배 간의 예의를 중요시하여 선배에게 존댓말을 쓰도록 한다. 그러나 L은 선배들에게 반말을 쓴다.

9. 대학생 K는 개강을 기념하여 술자리에 참석하였다. 같이 수업을 듣는 동기였던 M은 술이 매우 취한 채로 K에게 다가와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 K는 M의 행동에 매우 화가 나서 주먹으로 M의 얼굴을 한 대 쳤다.

www.kci.go.kr

10. 대학생 D는 수업을 같이 듣는 친구인 E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였다.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E는 학과 채팅방에 참여를 하지 않았는데, D는 E와의 일을 다소 과장하여 학과 채팅방에서 말하고, E에 대한 화를 표현하였다. 이를 알게 된 다른 동기들이 이후 강의실이나 복도에서 E를 마주치면 쌀쌀맞게 대하였다.

11. 대학생 T는 한 교양수업에서 자신의 고등학교 동기인 Y를 만나게 되어 같이 수업을 듣고 있다. 고등학교 시절 T는 Y에게 가벼운 욕설을 섞어 말하곤 했는데, 여전히 Y를 만날 때마다 욕설을 섞어 이야기한다. Y는 '욕을 듣는 게 기분 나쁘다'고 T에게 얘기를 했지만, T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Y에게 욕설을 섞어 말했다.

12. 대학생 L은 한 교양 수업에서 조별 과제를 위해 어떤 조에 편성되었다. 조별 과제의 주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L은 조별 회의에서 자신 있게 자기 생각을 주장했다. L은 자신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거나 비판하는 조원들에게는 다소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자신의 주장대로 조별 과제를 할 것을 주장하였다.

13. 대학생 R은 이번 학기에 토론으로 진행되는 전공과목을 수강한다. R은 발표 내용뿐만 아니라 발표자의 태도나 목소리 등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어느 날, 발표자의 태도와 내용 준비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R은 발표 이후의 토론 시간에 이 점을 들어 발표자를 비판하였다.

14. 대학생 N은 13학번으로, 최근 새로 입학한 17학번 학생들과 활발히 교류하고 있었다. N은 대부분의 신입생들과는 친하게 잘 지냈으나, 유독 신입생 M과는 성격이나 생활 유형의 차이가 많이 나서 M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N은 M을 마주쳐도 제대로 인사를 하지 않고 지나가며, 다른 후배들이 질문을 하면 친절하게 대하지만, M이 질문하면 차갑게 답했다.

15. 대학생 G는 친구들과 점심을 먹을 장소를 찾고 있었다. 학교 내에 있는 잔디밭이 경치도 좋고 편해 보였다. 잔디밭에 들어가지 말라는 표지판이 있었지만, 평소에도 많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드나들었기 때문에, 잔디밭에서 점심을 먹었다.

16. 대학생 J와 같이 수업을 듣는 동기들은 1학기 종강을 기념하여 학교 부근에서 자취하고 있는 J의 집에서 술을 마신 다음 날 다 같이 J의 집을 청소하였다. J의 원룸에서는 원칙적으로 쓰레기 종류마다 배출하는 요일이 정해져 있어서 술병과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수가 없었다. 쓰레기를 집에 놔두기에는 냄새가 날 것 같아 방법을 고민하다 학교 건물에 있는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렸다.

17. 대학생 O의 집은 학교로부터 1시간 30분 이상 걸리는 거리에 있다. 오전 9시 수업을 듣는 O는 늘 15~20분 정도 지각하였다. 앞문으로만 강의실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O가 지각을 할 때마다 교수님과 동기들이 O를 쳐다보고 수업이 잠시 중단되어 방해가 된다.

18. 대학생 Q는 조별 과제 수행을 위해 매주 월요일 오전 아홉 시에 다 같이 모이기로 하였다. Q는 평소에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 매우 힘들어서 30분 정도 늦게 도착한다. 이에 다른 조원들은 모임 장소에서 Q가 도착할 때까지 조별 과제를 진행하지 못하고 기다린다.

www.kci.go.kr

19. 대학생 W는 중간고사 기간에 시험 준비로 밤늦게 공부하였다. W가 공부를 마치고 순환 버스를 타고 가던 중 다리를 다친 학생이 버스에서 앉을 자리가 없어 W 앞에 서서 가고 있었다. W는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앉아서 갔다.

20. 대학생 V는 9월 29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과제가 있었다. W는 마감일보다 하루 늦게 과제를 완성해서 교수님 연구실 앞에 놓여있는 과제 제출함으로 갔다. W는 자신이 늦게 낸 것을 숨기고자 제출된 과제들 사이에 자신의 과제를 넣었다.

21. 대학생 R은 약 100명의 학생이 듣는 전공수업을 수강하고 있다. 많은 인원이 수업을 듣기 때문에 수업 시작 때 부르는 출석 체크 외에는 별도의 출석 확인을 하지 않는다. 중간고사 준비 기간이 되자, 다른 과목의 시험 준비로 바쁜 R은 출석 확인만 하고 빠져나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였다.

22. 대학생 E는 지정석이 있는 대형 강의를 수강하고 있다. 지정석의 목적은 수업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고 출석이나 다른 목적으로는 활용되지 않는다. 개강 후 2주 동안 E는 자신의 지정석이 맨 앞자리인 것을 부담스러워 하다가, 다음 수업부터는 맨 뒷자리로 자리를 옮겨 수업을 들었다.

23. 대학생 Y는 신입생 환영회에 참가하였다. Y의 학과는 인원이 많아서 학과에서 나눠준 점퍼를 입고 참석하도록 권고하였다. 그러나 Y는 학과 점퍼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학과 점퍼를 입지 않고 참석하였다.

24. 대학생 V는 단합이 강한 학과에 소속되어 있다. 개인적인 활동과 시험공부로 바쁜 나날을 보내던 V는 학과 모임에 빠지는 날이 잦아졌다. 자신의 동기들은 거의 빠짐없이 모임에 참석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V는 자신의 일이 바빴기 때문에 참석을 더욱 못하게 되었다.

25. 대학생 T는 인기가 많은 취업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번 모집 시기에 지원자가 많아 T는 서류를 검토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T는 서류를 검토하던 중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이 지원한 것을 알게 되었고,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서류 및 면접 점수가 낮았지만 예비 선발자로 분류하였다.

26. 대학생 U는 한 전공 수업에서 교수님의 부탁으로 조별 과제를 위한 조 편성을 담당하였다. U는 자신과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과 자신의 조를 먼저 편성한 후에 다른 조 편성을 하였다. 그래서 U는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조별 과제를 즐겁게 할 수 있었다.

27. 대학생 C는 같은 수업을 듣는 후배 N이 자신이 사용해보고 싶었던 전자기기를 가지고 있어 3일만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C는 빌린 기기를 사용하던 도중 실수로 기기를 파손하였다. C는 이에 별다른 보상을 하지 않고 미안하다고 사과만 하였다.

28. 대학생 R은 학과 재정위원회의 외부 심사위원으로 w 장학금 지급 심사에 참가하게 되었다. R은 자신과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기가 장학금 후보자인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R은 동기에 대해 적극적인 추천을 하여, 그가 최종적으로 선발되는 데 기여하였다.

www.kci.go.kr

부록 Ⅱ

연구 2에서 사용된 위반 시나리오

연구 2에서는 다음의 10가지 위반 시나리오를 사용하였으며, 위반 주체의 소속집단과 위반 장소를 제시하여 사용하였다.

1. [NC 다이노스/롯데 자이언츠] 팬 A는 롯데와 NC의 야구 경기를 관람하기 위하여 [마산구장/사직구장]에 방문하였다. NC와 롯데는 연장전까지 경기를 진행하였으나 5:5 무승부로 경기가 종료되었다. 경기가 끝난 후, 롯데의 한 팬과 경기 결과에 대해 시비가 붙은 NC 다이노스 팬 A는 롯데 팬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대 쳤다.

2. [NC 다이노스/롯데 자이언츠] 팬 F는 롯데와 NC의 야구 경기를 관람하기 위하여 [마산구장/사직구장]에 방문하였다. 7회 초, 롯데의 투수가 마운드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NC 다이노스 팬 F는 해당 투수의 이름을 부르며 욕설을 하였다.

3. [NC 다이노스/롯데 자이언츠] 팬 G는 롯데와 NC의 야구 경기를 관람하기 위하여 [마산구장/사직구장]에 방문하였다. 경기장에 입장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이 줄을 서 있었다. NC 다이노스 팬 G는 줄을 서 있던 한 사람에게 아는 체를 하며 새치기를 하였다.

4. [NC 다이노스/롯데 자이언츠] 팬 K는 롯데와 NC의 야구 경기를 관람하기 위하여 [마산구장/사직구장]에 방문하였다. NC 다이노스 팬 K는 관람석에 앉아 경기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다. 맥주를 마시고 있던 NC 다이노스 팬 K는 맥주잔을 놓쳐 맥주가 쏟아져 다른 자리에 흘러 들어갔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5. [NC 다이노스/롯데 자이언츠] 팬 E는 롯데와 NC의 야구 경기를 관람하기 위하여 [마산구장/사직구장]에 방문하였다. 5회 초, NC의 타자가 친 공이 파울볼이 되어 관람석으로 날아왔다. NC 다이노스 팬 E는 관람객들을 밀쳐가며 파울볼을 잡으려고 하였다.

6. [NC 다이노스/롯데 자이언츠] 팬 B는 롯데와 NC의 야구 경기를 관람하기 위하여 [마산구장/사직구장]에 방문하였다. 6회 말, 롯데의 타자가 타석에 등장할 때 롯데의 응원이 시작되었다. NC 다이노스 팬 B는 응원을 듣는 중간에 야유를 보내며, 응원을 방해하였다.

7. [NC 다이노스/롯데 자이언츠] 팬 L은 롯데와 NC의 야구 경기를 관람하기 위하여 [마산구장/사직구장]에 방문하였다. NC 다이노스 팬 L은 2개의 팩 소주를 사서 입장하였다. NC 다이노스 팬 L은 경기장에 입장할 때 들고 온 소주가 들키지 않도록 가방 깊숙이 숨겨서 반입하였다.

8. [NC 다이노스/롯데 자이언츠] 팬 S는 롯데와 NC의 야구 경기를 관람하기 위하여 [마산구장/사직구장]에 방문하였다. 야구 경기가 끝나고, 관람객들이 퇴장하기 시작하였다. NC 다이노스 팬 S는 자신이 먹었던 음식과 음료 등을 치우지 않고 퇴장하였다.

www.kci.go.kr

9. [NC 다이노스/롯데 자이언츠] 팬 H는 롯데와 NC의 야구 경기를 관람하기 위하여 [마산구장/사직구장]에 방문하였다. NC 다이노스 팬 H는 외야 관중석에 앉아 경기를 관람하고 있었다. NC 다이노스 팬 H는 관객석으로 날아오는 홈런 판정 전의 공을 자신의 모자를 이용해 잡았다.

10. [NC 다이노스/롯데 자이언츠] 팬 P는 롯데와 NC의 야구 경기를 관람하기 위하여 [마산구장/사직구장]에 방문하였다. 경기를 관람하는 도중 NC 다이노스 팬 P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NC 다이노스 팬 P는 경기장 밖에서 전화를 받는 것이 귀찮아 앉은 자리에서 전화를 받아 큰 목소리로 통화하였다.

www.kci.go.kr

부록 Ⅲ

연구 1에 사용된 시나리오의 준거 기준 점수 및 위반 행위 평가의 기술 통계치

시나리오	위반 행위 평가		일반성		허용성		규칙 독립성		도덕-인습 분류 점수	
	M	SD	M	SD	M	SD	M	SD	M	SD
1	3.291	1.738	-0.11	1.068	-0.739	0.943	0.061	0.804	-0.79	1.486
2	4.351	1.367	0.061	1.004	0.07	0.695	-0.023	1.135	0.109	1.81
3	5.788	1.141	0.082	0.865	0.831	0.53	-0.374	1.145	0.547	1.502
4	5.132	1.445	-0.004	0.953	0.515	0.7	-0.065	1.004	0.447	1.67
5	5.417	1.235	0.13	0.933	0.684	0.608	-0.24	1.01	0.578	1.675
6	5.305	1.414	0.208	0.818	0.543	0.745	-0.041	0.828	0.711	1.504
7	6.212	1.011	0.059	0.987	1.047	0.443	0.187	0.781	1.289	1.428
8	3.079	1.344	-0.255	1.056	-0.563	0.772	0.003	1.046	-0.815	1.737
9	4.523	1.423	-0.086	1.08	0.131	0.872	0.176	1.101	0.217	1.749
10	5.821	1.189	-0.006	0.983	0.707	0.563	0.265	0.653	0.961	1.272
11	4.901	1.315	0.023	0.989	0.229	0.619	0.213	0.764	0.461	1.399
12	4.947	1.259	-0.02	0.851	0.242	0.641	-0.004	1.087	0.218	1.388
13	2.954	1.576	-0.078	1.037	-0.872	0.881	0.211	0.813	-0.744	1.431
14	4.079	1.517	0.106	0.867	-0.462	0.835	0.147	0.814	-0.212	1.35
15	4.45	1.263	-0.056	0.951	0.141	0.651	-0.939	1.373	-0.835	1.756
16	4.04	1.331	0.007	0.952	-0.152	0.798	-0.074	1.088	-0.217	1.611
17	3.887	1.431	-0.02	1.001	-0.223	0.756	0.031	1.069	-0.212	1.598
18	5.179	1.149	0.075	0.933	0.457	0.624	0.19	0.805	0.718	1.468
19	4.212	1.565	-0.023	0.911	-0.38	0.807	0.076	0.866	-0.328	1.649
20	5.219	1.414	0.068	0.915	0.476	0.643	-0.132	0.915	0.415	1.424
21	3.98	1.494	-0.132	1.042	-0.191	0.827	-0.128	1.01	-0.448	1.768
22	2.695	1.419	-0.038	0.997	-0.904	0.746	-0.076	1.088	-1.017	1.583
23	2.391	1.451	-0.285	1.11	-1.164	0.788	-0.06	0.857	-1.508	1.494
24	1.642	0.919	0.029	1.099	-1.735	0.667	0.202	0.765	-1.508	1.499
25	5.185	1.498	-0.035	1.064	0.476	0.682	0.046	0.921	0.485	1.649
26	3.762	1.574	0.067	0.987	-0.377	0.838	0.067	0.819	-0.244	1.486
27	5.854	1.191	0.237	0.845	0.759	0.594	0.196	0.952	1.188	1.406
28	5.06	1.622	-0.003	1.018	0.454	0.808	0.083	0.931	0.533	1.617

www.kci.go.kr

부록 Ⅳ

연구 2에 사용된 시나리오의 준거 기준 점수 및 위반 행위 평가의 기술 통계치

시나리오	위반 행위 평가		일반성		허용성		규칙 독립성		도덕-인습 분류 점수	
	M	SD	M	SD	M	SD	M	SD	M	SD
1	6.769	0.605	0.664	0.799	1.048	0.567	0.506	1.15	2.218	1.7
2	5.583	1.291	-0.101	0.933	0.134	0.842	-0.1	0.874	-0.067	1.838
3	5.62	1.166	0.355	0.676	0.438	0.564	0.38	0.927	1.173	1.504
4	5.519	1.123	0.318	0.789	0.19	0.721	0.152	0.88	0.66	1.629
5	5.324	1.151	-0.173	0.974	0.029	0.703	-0.188	0.88	-0.333	1.736
6	4.306	1.519	-0.594	0.911	-0.968	0.883	-0.073	0.856	-1.635	1.768
7	4.519	1.585	-0.32	1.034	-0.426	0.961	-0.124	1.027	-0.871	2.338
8	5.278	1.303	0.301	0.833	0.204	0.718	0.003	0.927	0.508	1.826
9	5.269	1.749	-0.094	1.122	0.311	0.899	-0.494	1.026	-0.277	2.14
10	4.278	1.345	-0.355	1.025	-0.958	0.947	-0.062	0.951	-1.376	1.931

www.kci.go.kr